

경제적 불평등 개론

도서출판 리버티에서 낸 역사

《경제 모형과 방법론》

《공공선택론 입문》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가 정신 그리고 발견》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공공선택 접근법》

《자유 사회의 기초》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그리고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

《자유 101》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

《애덤 스미스 입문》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

《아인 랜드 개론》

《시장의 재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

《자본주의 개론》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학파: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기업가 정신 개론》

《본질적인 애덤 스미스》

《민주주의 개론》

《본질적인 제임스 뷰캐넌》

《본질적인 밀턴 프리드먼》

《무역과 세계화 개론》

《본질적인 자유의 여성들》

경제적 불평등 개론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An Introduction to
Economic Inequality

by Eamonn Butler

iea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도서출판 리버티

경제적 불평등 개론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22년 12월 30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c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22

An Introduction to Economic Inequality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22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22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22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30-6 (03300)

차례

• <i>지은이에 관해</i>	10
• <i>감사의 글</i>	12
• <i>요약</i>	13
• <i>그림 목록</i>	16
1 불평등 논쟁	17
불평등에 관한 합의	17
불평등 설화	18
그 설화의 의문시	21
2 정의, 측정, 설명	25
의미와 함의	25
경제적 불평등	27
이론적 설명	29
소득 불평등의 측정	31

3 소득 측정의 의문시	35
자료 결함	35
통계적 오류와 누락	37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가?	38
신뢰할 수 없는 사진	40
4 부 측정의 의문시	43
자료 결함	43
기타 혼란 요인	46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가?	46
진실의 왜곡	48
5 국제 비교	49
세계 불평등 설화	49
기타 설명	51
불평등, 빈곤 그리고 성장	53
6 부자들은 더 부유해짐이 틀림없는가?	57
부는 불확실하다	57
기타 부 형태	59
평등 없는 번영	60

7 도덕적 주장의 의문시	63
보편적 인간성 논거	63
존 롤스: 평등과 공정	65
8 실제적 주장의 의문시	69
《수준기》의 오류	69
우리 초점의 잘못된 겨냥	73
9 일터에서의 동일 임금	75
동일 임금의 모순	75
성별 임금 격차가 있는가?	77
CEO들은 자기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81
10 평등화 정책의 근원	85
윤리에서 정치로	85
동등 결과의 불가능성	86
불운의 보상	88
11 평등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91
평등에서 형평으로	91
사람들 필요의 대처	92
차이의 축소	95

12 기회의 평등	97
평등한 기회의 의미	98
우리가 상속을 걱정해야 하는가?	100
13 재분배 정책	105
누진 과세	105
부유세	107
최저 임금	110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	112
경제 성장	113
14 민주주의와 평등	117
연합 정치	117
재분배에 대한 한계	119
평등하게 하는 사람을 누가 평등하게 할 것인가?	123
15 평등에 대한 장벽	125
법적 및 시민적 평등	125
평등과 이동성	126
이동성에 대한 장벽	128

16 불평등의 역할	131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는가?	131
평등 사회와 불평등 사회	132
부와 지위	133
파이의 증대	135
17 결론	139
참고 문헌	143
추가적인 읽을거리	146
IEA에 관해	149
♦ <i>웁긴이 후기</i>	156
♦ <i>웁긴이에 관해</i>	158

지은이에 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는 세계의 지도적인 정책 싱크 탱크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과 심리학 학위들, 철학 박사 학위, 그리고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에 그는 워싱턴에서 미 하월에 근무했고, 미시간주 힐스데일 대학(Hillsdale College)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후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공동 창설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밸리 포지의 자유 재단(Freedoms Foundation at Valley Forge)이 수여한 자유 메달(Freedom Medal)과 영국의 전국 자유 기업상(UK National Free Enterprise Award)을 받았다; 그의 영화 《마그나 카르타의 비밀들(Secrets of the Magna Carta)》은 앤섬 영화제(Anthem Film Festival)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책 《자유 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피셔 상(Fisher Prize)을 받았다.

에이먼의 다른 책들은 선구적인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대한 개론서들을 포함한다. 그는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 공공선택론, 자본주의, 민주주의, 무역,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그리고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관한 입문서들도 출판하였고, 게다가 《축약된 국부론(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과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도 출판하였다. 그는 《40세기의 임금 및 가격 통제들(Forty Centuries of Wage and Price Controls)》과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다. 그는 인쇄, 방송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빈번한 기고자이다.

감사의 글

제안을 해 주고 출처에 대해 도와준 많은 친구에게 감사하며, 특히 사실들과 참고 문헌들을 조사하는 일을 해 준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피오나 타운슬리(Fiona Townsley)에게 감사합니다.

요약

경제적 불평등의 쟁점은, 더욱더 많은 책 및 논문과 함께, 경제 및 정치 논쟁을 지배하게 되었다. 평등은 흔히 그 자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신뢰 같은 다른 가치들을 전달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는, 부유한 소수가 세계의 소득 대부분을 벌고 세계의 물적 및 금융적 부 대부분을 소유하여, 통계는 충격적인 것처럼 보인다. 불평등은 더 낮은 기대 수명, 빈약한 교육, 정신 질환, 비만,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하여 생각되었다. 운동가들은 부에 대한 과세, 복지 국가의 확대 그리고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설화(說話; narrative)에는 심한 결함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불평등은 측정하기 어렵다. 세전 소득은 매우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 주택 그리고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조세 편익과 복지 편익은 생활 수준에서 실질 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인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에서 얻는 편익의 많은 부분은 재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극, 향유 그리고 만족이기도 하다.

불평등 통계는 다른 면들에서 오도한다. 사람들의 소득은 보통 그들의 생애에 걸쳐 상승하고, 고소득자는 더 많은 생애 저축을 축적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같이 묶음으로써, 통계는 큰 불

평등을 암시한다—그리고, 설사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생애에 걸쳐서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불평등 설화에 기초한 정책들도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에 관해 이야기할지라도, 누구도 사실상 소득을 의식적인 방식으로 *분배하지*(distributes) 않는다. 소득은 그저 모든 사람의 경제적 행동들의 결과일 뿐이다. 부와 소득의 양식(樣式)이 영합(零合)이지도 않다.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시장과 무역의 확대는 전 세계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다.

평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재분배는 모순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불평등하게*(unequally) 대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경제적 처지가 자기들 자신의 선택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가 높은 일보다 더 많은 가족 시간이나, 직무 만족이나, 편안과 여가를 선택할지 모른다.

재분배 의제의 비판자들은 더 높은 세금, 최저 임금 그리고 더 큰 복지 국가 같은 정책들이 유인을 악화하여, 근로, 저축, 기업심 그리고 진보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들에 갈 것이다.

여론 조사들은 사람들이 *불공정*(unfairness)을 싫어하지만 다른 목적들을 *평등*(equality)보다 훨씬 더 높게 등급 짓는다고 암시한다. 불평등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문제, 즉 어떻게 모든 사람의 번영을

증대할 조건들을 창출할 것인지로부터 시선을 딴 데로 돌릴지 모른다.

그림

그림 1 로렌츠 곡선	30
그림 2 극빈 상태에서 사는 세계 인구, 1820년에서 2015년까지	55

1 불평등 논쟁

불평등에 관한 합의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은, 경제학자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사회 연구자들의 점증하는 책들과 함께, 많은 학술 및 정치 논쟁에 중심적으로 되었다.

많은 것 중에서, 경제학자 J. K. 갤브레이스(J. K. Galbraith)가 《풍요한 사회(The Affluent Society)》 (1958)의 과잉들에 대해 한 공공연한 비난;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불평등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기도 하다고 한 주장; 불평등이 대부분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암시하는 연구자들 케이트 피켓(Kate Pickett)과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에 의한 《수준기(The Spirit Level)》 (2010);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2013)에서 불평등이 사회를 긴장시킨다고 본 견해; 그리고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자본(Capital)》 (2017)에서 부자들이 전 세계적인 부유세에 직면하지 않으면 항상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한 주장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최저 임금 정책, 복지 지출 증가, 때때로 100퍼센트에 도달하는 한계 소득세율, 그리고 부에 과세

하려는 제안을 가지고 그 운동을 따랐다.

그래서, 불평등의 해악들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비록 덜 들릴지라도, 그 주장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에 기반을 둔 정책들의 대가가 너무 값비싸다고 믿는 많은 경제학자, 철학자 그리고 사회 연구자도 또한 있다.

불평등 설화

충격적인 통계. 첫눈에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통계가 충격적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상위 10퍼센트 소득자의 총소득은 하위 50퍼센트가 버는 것의 10배이다. 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그 수치는 15배 이상 더 많다;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것은 20배 이상 더 많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상위 10퍼센트는 하위 50퍼센트보다 30배 이상 더 많이 번다.

부 불평등에 관한 통계는 더욱더 뚜렷하다. 유럽에서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는 총(總)부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것 같다. 북아메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것은 거의 70퍼센트이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것은 70퍼센트 이상이다. 요컨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퍼센트는 세계 부의 76퍼센트를 소유하는 것 같고, (UN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퍼센트는 그것의 40퍼센트를 소유한다. 옥스팜(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빈민 구호 단체)은 약 2,000명의 억만장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0억 명보다 더 많

이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들에서는, 상위 1퍼센트가 버는 소득 몫이 1920년대와 1970년대 사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다음 50년에 걸쳐서, 그것은 다시 올랐다: 10퍼센트 가장 부유한 미국인은 자기들의 부를 5배로 했지만, 가장 부유한 1퍼센트는 자기들의 것을 7배 증가시켰다. 세계적으로,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는 평균 부가 1995년 이래로 약 3퍼센트 증가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부는 그 비율의 두세 배로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는 그때 이래로 모든 부 증가의 거의 $\frac{2}{100}$ 를 손에 넣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0퍼센트는 그것의 $\frac{2}{100}$ 만 얻었다.

불평등에 관한 우려. 이해할 수 있게, 이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널리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자기 보강적인 것으로도: 상속과 양육은 부자들의 자식들에게 특권적 인생 출발을 제공하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벌며 자기들의 특권을 보존할 수 있다. 약간의 불평등 비판자는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계속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하는 데 자기들의 부를 사용하고, 자기들을 위해 세금을 삭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억제할 연고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돈을 정당에 쏟아 넣는다고 주장한다. 산업 사회들에서 가난한 가족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들이 다른 나라들로 외주(外注)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떼어 둘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금융 투자액이 치솟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멈출 어떠한

공정한 과세도 없이 그렇다.

《수준기》의 저자들은 더 나아가서, 불평등이 더 낮은 평균 수명, 더 빈약한 교육, 더 적은 신뢰, 더 많은 정신 질환, 자살, 비만, 살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더 평등하면, 영국의 평등 신탁 단체(Equality Trust)는 말한다, ‘살인율이 반감할 수 있고, 정신 질환이 ⅓만큼 줄어들 수 있으며, 비만이 반감할 수 있고, 투옥이 80%만큼 줄어들 수 있으며, 10대 출산이 80%만큼 줄어들 수 있고, 신뢰의 수준이 85%만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재분배 요구. 평등은 자명하게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하고 정당할 —그 자체 좋다—뿐만 아니라, 건강, 평화 그리고 신뢰 같은 다른 가치들도 산출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평등한 기회들과 그들 모두가 생산하는 것의 평등한 몫을 누려야 한다는—기본적인 인간 가치들로부터 파생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증명 책임은, 그것은 이야기된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이 이 명백한 선을 포기하기 전에, 그들은 [포기하면] 무슨 편익이 따를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가정(假定)은 우리가 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진 소득세, 부유세, 더 큰 복지 국가, 보건·주택 및 교육과 같은 기본재들의 더 평등한 제공, 최저 임금, 더 강한 노동조합, 차별 금지법 그리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가진, 오직 사회 및 조세 혁명만이 충분할 것이다.

혹은 더욱더 큰 혁명이. 약간의 운동가는 불평등의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에 고유하다고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다른 경제 체제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설화의 의문시

이 불평등 설화(說話)는 지금 아주 친숙하고 아주 널리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더 개설할 필요가 거의 없다. 대신, 이 책은 그 설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의 주장들을 검증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그것에 행해진 비판들—중요하고 광범위하지만, 똑같은 관심을 받으려고 고투하는 비판들—에 집중함으로써이다.

측정 문제들. 예를 들면, 그 설화의 비판자들은 소득 불평등이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돈은 모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또한 만족스럽고, 자극적이며, 즐거운 일들로부터도 ‘심리적인 소득(psychological income)’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될 수 없다. 게다가, 세전 소득들이 매우 불평등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세후에는 훨씬 덜 그렇다. 그리고 복지과 연금 같은 국가 급부금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 소비/하께(consume) 되는 것은 훨씬 더 평등하다.

그다음 사람들의 소득이 보통 그들의 생애에 걸쳐 상승하고(그리고 더 높은 소득을 받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음에 따라, 부가 더욱더 그러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통계가 불평등을 과장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들이나 회사들이 소유하는 것과 같은 많은 부는 계산에 들어오
기조차 하지 않아서, 대부분 부가 소수의 부유한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
는 그릇된 인상을 우리에게 남긴다. 게다가, (주식, 채권(債券), 부동산
혹은 자동차 같은) 사람들 재산들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
부가 변동한다. 참으로, 만약 금융 붕괴가 있고, 모든 사람의 부가 줄어
들지만, 부자들의 재산이 더욱더 줄어든다면, 모든 사람이 더 가난하다
고 할지라도, 평등은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불평등한 대우. ‘평등(equality)’과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는,
이 비판자들은 말한다, 한쪽에 치우친 용어이다. 우리는 실제로 소득
차이들(differences)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들은 타당한 이유와
부당한 이유로 그저 일어날 뿐이지만, 아무도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분
배하지(distributes)’ 않는다. 그 평등의 이름으로 하는 재분배(redistribution)
는 모순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다루기
를—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요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람들은—가족 배경이나, 힘 혹은 매력 같은 타
고난 능력과 같이—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재정적인 방식에서 서로
다른데,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수익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측
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의 재산은 또한 그들 자신의 선택에도 달
려 있다: 사람들에게 나쁜 선택을 보상하는 것은 그저 더 많은 나쁜 선
택을 조장할 뿐일지 모른다.

정책 문제들. 누진세와 더 높은 국가 급부금과 같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는 정책들은 유인을 악화하고, 근로, 저축, 기업심, 혁신, 진보 그리고 번영을 억제한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그들의 수입은 가난한 사람들에 가지 않을 것이고 집단들의 정치적 힘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어떤 경우건, 국가 프로그램들은 정확하게 공정하지 않다—예를 들어, 학교 교육의 제공은, 만약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자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혀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재분배를 책임지는 정치인들과 관리들은 막대한 권한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은 남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우려들. 여론 조사들은 사람들이 불공정(unfairness)을 반대하지만, 다른 쟁점들을 불평등(inequality)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고 암시한다. 대부분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기를 원할 뿐이지,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으로, 사람들은,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데 목숨을 건다.

불가능한 부 평등을 낮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판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들은 평등한 법적 및 정치적 권리들을 옹호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사람들의 자기 개선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과 그들을 자유롭게 다양한 개인으로서 대우하는 것을 옹호한다. 이것이 소득과 부에서 큰 차이를 낳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모든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고 빈곤을 종식한다면, 어떤 인도적인 사람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2 정의, 측정, 설명

의미와 함의

대중 설화는 부와 소득에서 더 많은 평등이 자명하게 좋은 것이어서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의문시할 것이라고, 변화하는 데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평등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것이 다른 정치적 목적들에 우선해야 한다고 암시한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불평등 설화의 의미와 함의를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선, 언급되었듯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다. 그들의 나이, 힘, 능력, 재능 그리고 인격이 모두—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럴지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그들의 수익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우리는 그저 이 개인 특성 대부분을, 그것들을 평등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측정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것은 불평등 설화가, 잠재적으로 측정 및 조작할 수 있는 소득과 부에 집중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사람들의 부와 소득을 평등화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많은 다른 면에서 불평등한 채로일 것이다.

그리고 평등화가 하여간 해야 할 공정하고 정당한 일일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극히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검소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벌고

더 많은 부를 얻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덜 벌고 얻는다면, 우리가 그런 도덕적 차이들을 무시하고 하여간 그들을 경제적으로 평등한 상태로 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과 분별을 거의 장려하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 치우친 용어들. 불평등과 평등이 한쪽에 치우친 용어들이라는 점은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단어들은 그저 차이와 유사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유사가 좋고 차이가 나쁘다고 암시하기도 한다. 그 점은 사람들을 재촉하여 인간 차이들을 그저 *이해*하는 것만을 넘어 그것들을 *바꾸는 것*에 착수하게 한다—이것은 할 현명한 일일지도 혹은 아닐지도 모른다.

소득 *분배*와 부 *분배*라는 구(句)들은 또한 오도하기도 한다. 통계 용어로서 *분포*(distribution)는, 각 연령 집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와 같이, 단지 어떤 특징의 발생 범위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상 사용에서는, *분배*(distribution)는 소득이나 부가 번(earned)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사회(society)’ 같은 단체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할당하고*(allocating)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다음 우리가 서로 다른 집단이 향유하는 소득 몫에 관해, 마치 소득이 한 가족 사이에서 나뉘지는 파이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혼동은 증대된다. 다시 몫(share)이라는 용어—와 사람들의 *공정한 몫*(fair share)에 관한 이야기—는 *평등한 몫*이 유일하게 도덕적인 결과라고 암시한다.

따라서, 평등 논쟁의 언어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득 및 부 차이들을

변경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도록 강요하다시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용어들을 버리고 단지 경제적 *차이들(differences)*과 소득과 부의 *분포(spread)*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논의는 더 명백하게 진행될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논쟁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등*과 *분배* 같은 용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서술(descriptions)*이지 *처방(prescriptions)*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이 책의 주제인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은 부나 소득에서 차이들에 관한 것이다. *소득(income)*은 어떤 사람이 일자리나 사업으로부터 혹은 부동산 임대료나 투자 배당금으로서 버는 편익(보통 화폐)의 유량(流量)이다. (임대료나 배당금은 때때로 *불로소득(earned income)*—부동산과 자산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저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래서 참으로 번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한쪽에 치우친 용어—으로서 구별된다.)

*부(wealth)*는 토지, 주택 혹은 자동차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얻는 자산들, 더하기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 자산들의 *저량(貯量)*의 가치이다. 소득과 부 사이에는 피드백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질수록, 그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inequality)*은 *빈곤(poverty)*과 같지 않다. 주민들은

평등하지만 가난하거나, 불평등하지만 부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많은 다른 나라보다 덜 평등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나라보다 더 부유하다. 미얀마는 대부분 나라보다 더 평등하지만, 또한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더 가난하기도 하다. 부룬디에 사는 두 명의 자급자족 농민이 평등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에서 평등하다.

다시, 우리는 빈곤(poverty)이라는 용어를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절대(absolute)** 빈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특정 궁핍 수준을 의미할지 모른다. (비록 여기에서조차, 우리의 궁핍(deprivation) 관념이 시간에 걸쳐서 변할지라도—온수와 같이, 오늘날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한 세기 전에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을 가리킬지도 모르는 데, 거기서는 사람들은 전국 평균보다 덜 번다—중위 소득(median income)의 60퍼센트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통 정의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잘살지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선 위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전혀 잘살지 않을지 모른다.

또한, 설사 어떤 경제 호황이 모든 사람의 소득을 두 배로 했을지라도,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수(數)들이 똑같은 채로일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라.

평등(equality)은 또한 **형평(equity)**과 같지도 않다. 경제적 평등은 동일한 부나 소득—객관적인 측정치—을 의미한다. 형평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득이나 부의 분배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이다.

이론적 설명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많은 이론적 설명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그것을 경제 권력과 노동자 착취의 역사적 결과로 보았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사회적 지위, 소유권 그리고 정치권력에서 차이들이 계층제들을 창설하고 그다음 그것들이 소득들에 반영된다고 생각했다. 현대 여권주의자들(페미니스트들; feminists)은 그것을 가부장제(patriarchy)와 유리 천장(glass ceiling)의 탓으로 돌릴지 모른다. 신자유주의자들(neoliberals)은 그것을 그저 비인적(非人的; impersonal) 시장 과정들의 객관적인 결과로 본다—그리고, 경제 및 정치권력의 집중을 일으키는 정부 개입들이 없다면, 그것이[불평등이] 더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설명들이 부족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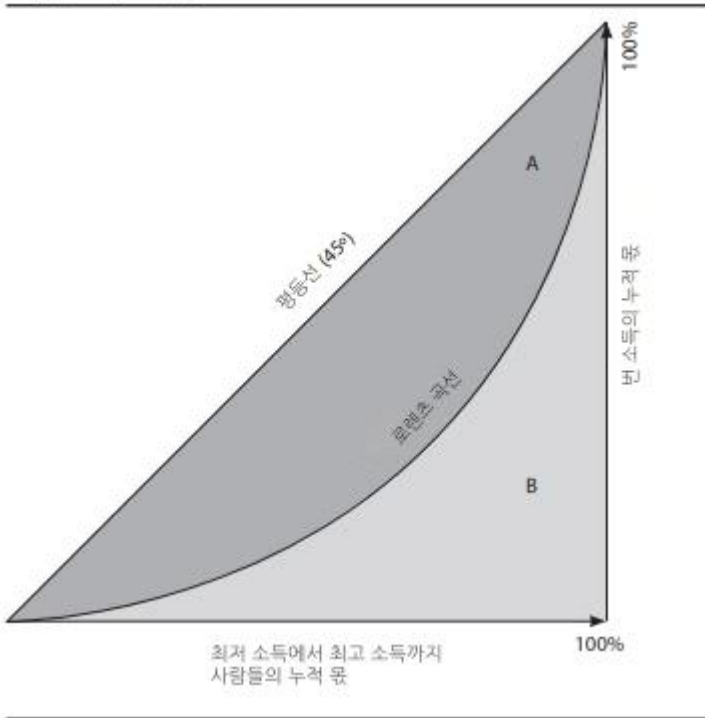
실제적인 면에서, 시장 상황은 불평등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세계화(globalization)는 산업 국가들에서 생산자들을 부추겨 제조업 일자리들을 더 값싼 나라들로 외주하게 하였고, 금융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에서 고속련 근로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기존 소득 격차를 확대하였—다.

정부들도 역시 부지중에 불평등을 증가시킬지 모른다. 주택이나 연료나 의복 같은 필수품들에 대한 역진세는, 이것들이 가계 예산의 더 큰 부분인, 가난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한다. 복지 제공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일을 찾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급부금에 버티고 눌러앉아 있는 것을 목격할지 모른다. 기타 등등이다.

사회 변화들도 역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낮은 교육 혹

은 숙련 수준들을 가진 이민자들의 대규모 유입은 이미 낮은 임금에 그 이상의 하향 압력을 부과할지 모른다. 일하는 여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지 모르는데, 그들 중 다수는 (보수가 더 적은) 유연한 혹은 시간제의 일을 선택한다. 1인 혹은 편부모 가구들의 그리고 맞벌이 가구들의 증가도 역시 가구 소득 차이를 넓힌다. 그리고 노령화 인구는 더는 별지 않지만 저축된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을 의미할지 모른다.

그림 1 로렌츠 곡선



소득 불평등의 측정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식은, 미국 경제학자 막스 로렌츠(Max Lorenz)가 개발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으로 시작한다. 수평축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소득자들의 누적 수가 있고, 수직축에는 그들이 받은 총소득의 누적 백분율이 있다. 만약 완전한 평등이 있어서, 전 주민의 각 x 백분위수가 소득의 바로 그 x 백분위수를 받는다면, 이것은 그래프에서 일직선의 45° 선을 낳을 것이다. 더 많은 불평등이 있을수록, 곡선은 45° 선 아래로 더 많이 볼록해진다.

이것으로부터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의 이름을 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그 곡선과 45° 선 사이 면적(A)의 45° 선 아래 총면적(B)에 대한 비율—가 도출된다. 그 비율이 더 높을수록, 불평등이 더 커진다. 0의 지니 계수는 완전한 평등을 의미할 것이다; 1의 지니 계수는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해서,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갈 것이다.

이 계산은 몇몇 흥미로운 결과를 두드러지게 한다. 세계 인구 개관(World Population Review)에 의한 연례 계산들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예, 남아프리카, 나미비아)가 대단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라틴아메리카 나라(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가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구(舊)소비에트 국가(예,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는 훨씬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북유럽 나라들(예, 핀란드, 아이슬란드)은 바깥 뒤에 온다. 미국은 비록 흔히 대단히 불평등한 것

으로 낙인찍혔을지라도, 그저 가장 불평등한 나라 1/3에 가까스로 오를 뿐이고, 영국은 가장 평등한 1/3에 나타난다.

단점들. 불행하게도, 지니 계수는 ‘이상치들(異常値들; outliers)’에 매우 민감해서, 큰 인구에서조차도, 소수의 매우 부유한 개인이 그 수를 크게 바꿀 수 있게 된다. 팔마 비율(Palma ratio) (최고 소득자 10퍼센트가 버는 총국민소득을 최저 소득자 40퍼센트의 그것으로 나눈 비율)과 쿠즈네츠 비율(Kuznets ratio) (최고 20퍼센트와 최저 40퍼센트에 대해 똑같이 한 것) 같은 다른 측정치들은 이 문제에 덜 민감하다. 그렇지만 이 측정치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나라 안에서 불평등들의 정확한 본질(nature) (서로 다른 인종, 나이 혹은 성 집단 사이 차이들 같은 것)에 관해서도, 그것들이 생기는 이유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추세. 지니 계수가 조잡하고 잠재적으로 매우 오도하는 측정치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불평등 논쟁에서 가장 통례적으로 인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추세를 드러낼지 모른다: 예를 들어, 그것은 192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선진국들에서 불평등이 하락했다—흔히 복지 지원과 교육에 대한 더 보편적인 접근의 덕분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다음, 1990년 이래로, 미국 같은 몇몇 선진국 안에서 불평등은 상승했던 것 같다—흔히 세계화, 경제 성장,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 이민 그리고 가난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덜 요구하고 얻을 수 있게 방치하는 악한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려진다. 그러나 EU

와 영국 같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그 추세는 훨씬 덜 현저하다.

최근 수십 년의 상향 추세와 하향 추세 양쪽 다는 거의 확실히 많은 원인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세계화가 하나의 강력한 요인일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보수를 많이 받는) 최고 인재의 수요를 올렸고 (보수를 더 적게 받는) 제조업 일자리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외주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감세들은 부자들을 더욱더 잘 살게 할지 모르지만, 더 강력한 효과는 그것들이 이전의 세금 회피 목적 국외 이주자들이 귀국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점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개, 이주자들은 가난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주자—국제 통화 기금에 따르면, 지금 선진국들의 인구들의 12퍼센트인데, 1990년의 7퍼센트에서 올랐다—수 증가는 불평등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가 독점 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므로 노동조합들은 더 약해졌다. 그러나 현대 경제는 더 작은 경쟁 기업들에 훨씬 더 의존하고, 그래서 비록 임금 교섭이 더 국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은 그것이[임금 교섭이] 더 약하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경제 성장의 급등이 흔히 불평등 상승과 관계가 있지만, 성장은 더 부유한 산업 국가들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훨씬 더 강력했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의 불평등 상승에 강력한 요인이 아닐지 모른다.

자재로운 불평등? 이런 가능한 요인들을 자세히 점검할 때, 어떤 불평등 원인들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자재로울지 모

른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과 세계화는, 지니계수들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번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더 약한 노동조합들은 그것들을 약하게 하는 어떠한 정치 운동보다도 더 경제적 변화와 진보에 기인할지 모른다. 더 낮은 세금은 한 나라가 자기의 도피 자본(flight capital)을 되찾고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도울지 모르는데, 이것들은 그것이[그 나라가] 미래 여러 해에 걸쳐 번영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불평등은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긍정적인 변화들의 결과일지 모른다.

3 소득 측정의 의문시

자료 결함

지니 계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니 계수는 또한 제한되고 의심스러운 정보에 의존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나라는 소득 자료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정확도로, 측정하여, 국제 비교를 신뢰할 수 없게 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관들은 이 차이점들을 보완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완전한 방식이 없다.

나라 안에서조차도, 소득 정보는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 가계 소득에 관한 미국 현재 인구 조사(US Current Population Survey)는 오직 화폐 수입액만 포착하고, 자본 이득은 포착하지 않으며, 최고 소득들은 비밀을 이유로 보고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 소득 통계(US Treasury Statistics of Income)는 최고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더 완전하지만 낮은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덜 그렇고, 나이, 교육상의 자격 그리고 우리가 소득 불평등의 정도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지 모르는 다른 요소들을 포착하지 않는다.

추세 자료도 역시 소득으로서 보고되는 것을 바꾸는 연례 세법 변경들, 덧붙여서 기업 이윤과 손실의 변동에 의해 혼란된다. 그리고 지니

접근법은 미국에서 노인 의료 보장(Medicare)과 영국에서 국민 건강 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 같은 현물 국가 급부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후자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어떤 재화들과 서비스들도 크게 평등하게 한다.

세금과 편익. 지니 결과들은 소득이 세전에 평가되는지 세후에 평가되는지에 크게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재정 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 소득자가 모든 소득세 수입액의 $\frac{1}{3}$ 을 훨씬 넘어 낸다. 영국 소득자의 상위 20퍼센트는 하위 20퍼센트가 가진 소득의 12배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세와 국가 급부금이 포함된 후에는,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그것은 그저 네 배만으로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1)는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means-tested) 급부금이 미국 소득자의 하위 $\frac{1}{6}$ 의 소득을 68퍼센트만큼 증가시켰지만, 세금이 상위 $\frac{1}{6}$ 의 소득을 24퍼센트만큼 감소시켰다고 보고한다.

게다가, 보통 교육, 보건 의료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운송 같은 현물 공공 급부는 매우 평등하게 분배되는데, 공원, 치안, 스포츠 시설, 노인 돌봄, 도로 그리고 쓰레기 수거 같은 지역 시설들의 제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미 평등화 체계(equalisation system)가 있는데, 이것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세후 및 급부금 후 ‘가처분(disposable)’ 소득들에 근거한 지니 계수들을 인용한다. 그

러나 우리는 운동가들이, 조세와 급부금이 포함되기 전, 원(原) 소득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후자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이라는 면에서 실제 불평등을 크게 과장한다.

통계적 오류와 누락

엄밀하게 재정적인(financial) 통계조차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최상위의 소득자들이 너무도 거의 없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다수의 그런 사람은 불규칙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큰 이윤을 벌고 때로는 큰 손실을 본다.

지하 경제. 통계에서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지하 혹은 ‘뒷주머니(back pocket)’ 경제—이다. 한계 세율이 더 높을 수록, 이것이 더 클 것 같다. 2018년 IM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지하 경제(shadow economy)는 국내 총생산의 6퍼센트를 넘는다—그리고 그것은 유럽 기준으로는 낮다. 스페인에서는 그것은 11퍼센트를 넘고, 그리스에서는 14퍼센트를 넘으며, 불가리아에서는 놀랄 만한 19퍼센트이다.

비과세의 ‘뒷주머니’ 소득은 아마도 저소득자들에게 가장 크게 이익이 될 것인데, 공식적인 수치들로부터의 그것의 누락은 불평등 수치들을 부풀린다. 많은 상위 소득자가 자기들의 보고된 소득을 최소화하도록 조세 규칙들을 조작한다는 점이 사실이고, 이것은 보고되는 소득이 [실제보다] 더 평등하게 보이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훨씬 더 광범위한

지하 경제는 거의 확실히 이 효과를 압도한다.

생활 수준. 비록 세금, 사회 및 현물 급부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통계에 넣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가질 여유가 있는 생활 수준을 크게 평등하게 한다. 한편,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그리고 주방용품 같은 중요한 재화들과 서비스들에 대한 오늘날의 거의 보편적인 접근은 또 하나의 커다란,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평형 장치(equaliser)이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건강 보험(미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혹은 연금(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같은 일터 ‘부가(fringe)’ 급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다시 실제 불평등을 그것의 외관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든다.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가?

대부분 소득 통계는 *가구*(household; 가계) 소득에 집중한다. *개인*(individual) 소득을 사용하는 것은 불평등을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고소득자, 한 명의 비고용 배우자 그리고 두 명의 학생 자녀는 소득 면에서 매우 불평등하게 보일 것인데, 설사 네 사람 모두가 똑같은 생활 수준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대조적으로, 네 사람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가구는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다고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가구들은 아주 다양해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을 벌지 않는, 학생들과 돌보는 사람들의 수의 증가는 외관상 불평등 증가의 약간을 설명할지 모르는데, 설사 이 비소득자들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1인 가구와 다(多)소득자 가구 양쪽 다의 증가는 불평등 수치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회적 요인들. 다른 사회적 요인들도 측정치들에 영향을 미친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유한 나라들로 이주하는 것은 이미 언급되었다. 그리고 런던과 뉴욕 같은 소수의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부유한 이주자들의 유입들이 외관상 불평등을 더욱더 확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장기 불평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급증일 뿐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이*이다.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형적으로, 그들은 낮은 임금으로 시작한다—혹은 만약 그들이 교육 중이거나 전문 직업을 위한 훈련 중이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전혀 벌지 못할지 모른다. 그다음 그들이 더 많은 경험, 기술, 접촉, 지위 그리고 신뢰를 얻음에 따라, 그들의 소득은 상승한다. 그다음 그들이 은퇴하고 저축으로 살게 됨에 따라, 그것은 다시 준다. 설사 각자가 *자기 평생에 걸쳐 정확하게 똑같은 총소득을 번다고* 할지라도, 통계는 여전히 현저한 불평등을 보일 것인데, 왜냐하면 통계는, 저소득 젊은이들과 고소득 노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파노라마 같은 순간 촬영 사진을 찍기 때문이다.

문제없는 불평등. 지니 측정치들이 이런 큰 나이 효과 같은 요인들을 감추는 정도로, 아마도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오늘의 상위 20퍼센트 소득자는 40년 전에 하위 20퍼센트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일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의 가난한 이주자들은 내일의 백만장자 기업가들이 될지 모른다. 오히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문제없다고 여길 현상을 불평등 통계가 반영할지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높은 불평등 측정치들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신리할 수 없는 사진

그러므로 가구들의 구성, 일터의 본질, 주민의 나이, 국가 급부금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모두 지니 계수에 결정적이다. 그러한 요인들의 조정은 대중 논쟁을 지배하는 크고 넓어지는 불평등의 사진에 대한 *반대*의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의 무시. 또 하나의 문제는 소득 통계가 단지 화폐만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로부터 얻는 많은 편익은 재정적이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 정신적으로 보람 있는 일자리에서—아마도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깨끗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을 하면서—일하기 위해 *기꺼이(willingly)* 더 낮은 임금을 받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불쾌한 환경에서 불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위험한 일을 하고서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선호

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책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임금이 적지만 유연하거나 시간제의 작업을 의식적으로 선택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훈련하기 위해 현재 소득을 포기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한 선택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희생의 가치에 대해 내리는 개인적인 평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불평등 계산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선택들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불평등하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들이 누리는 비재정적 편익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차이가 훨씬 덜 있을 것 같다.

소비. 하여간, 화폐 소득들은 단지 이야기의 반일 뿐이다. 진정한 질문은 그것들이 사람들을 위해 구매하는 것이다. 불평등 설화는, 1970년대 후기 이래로, 최고 소득자들의 소득들이 상승해 오고 있지만 최저 소득자들의 그것들은 ‘부진해져서(stagnated),’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암시한다.

이것은 대체적인 총괄이다. 최근 몇 년에, 측정된 불평등이 (미국 같은) 몇몇 선진국에서 상승했지만, 모두는 아니다. 예를 들어, 마크 모건(Marc Morgan)과 테레사 니프(Theresa Neef)에 의한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2020)를 위한 연구는, 유럽에서 불평등이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그것이 그 이래로 꽤 평평한 채로였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상위 10퍼센트 소득자의 세후 소득은 하위 50퍼센트의 그것 쪽으로 되돌아 좁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넓어지는 불평등(widening inequality)’ 주장은 국가 급 부급과 공공 서비스의 평등화 요인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급상승하는 생산성, 기술 그리고 세계화로 가능하게 된, 우리가 구매하는 것에서의 막대한 가격 하락들(과 품질 향상들)도 무시한다. 그저 몇 개의 예만 들면: 자동차, 의약, 가정용품 그리고 전자 제품은 모두 굉장히 싸졌다. 그것은 특히 가난한 가족들에게 이익이 되었다—고소득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나 식기 세척기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낮고 더 값싼 식품, 보건 의료, 운송 그리고 의복은 어떤 사람의 생활 수준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더 높였다.

한편, 기대 수명은 현저하게 상승했고, 유아 사망자 수는 지금은 희귀한 것이다. 사람들은 더 적은 시간 일하고 더 긴 휴일을 얻는다. 이것은 ‘침체(stagnation)’가 아니라, 저소득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저한 향상이다. 그것은 생활 수준에서 실제 차이들을 좁히지만, 통계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생활 수준이 향상했는지의 지표로서, 지니, 팔마 그리고 쿠즈네츠 소득 불평등 측정치들은 전혀 완전하지 않다.

4 부 측정의 의문시

자료 결함

많은 똑같은 이유로, 부는 소득보다 측정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기초를 형성할 역만장자가 너무나 거의 없다. 주택이나 회사 주식 같은 자산들의 가치는 해마다, 혹은 날마다도 바뀌어, 한 사람의 ‘부(wealth)’에 대해 수치를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정부들이 조세 목적으로 소득들을 추적하지만, 자산들은 대체로 오직 그것들이 팔릴 때만 과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는지에 관한 그저 희미한 사진만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정확한 부 불평등 측정치가 없다.

유산들로부터의 정보. 부 차이를 평가하는 고전적인 방식은 망자(亡者)의 유산들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조세 목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그저 매우 왜곡된 사진만 제공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석, 현금 그리고 가정용품 같은 자산들은 종종 상속세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가족들에 의해 저평가된다(혹은 신고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이 매우 일반적인 재산이고, 더 적은 유산들 대부분을 구성하므로, 그 효과는 더 적은 유산들이 더욱더 적게 보이게 하여 외관상

불평등을 넓힌다.

또한, 사망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고 (생애 주기 효과를 고려하면) 더 부유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대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 모집단의 그저 하나의 작은 표본일 뿐이므로, 그것들에 기초한 통계는 이상치(異常値)들에 민감하다; 단 한 사람 억만장자의 사망은 어떠한 해에서든 기록되는 외관상 불평등을 올릴 것이다.

국가 재정 지원 혜택들. 또 하나 널리 간직되지만 무시되는 부 형태는 국가 급부금들과 서비스들의 가치이다. 복지와 연금 같은 국가 급부금들은 그것들의 수령자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지속할지 모르는 현금 소득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 소득 흐름에 자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그것을 당신이 똑같은 이자 지급 흐름을 낳기 위해 저축 예금에 넣을 필요가 있을 화폐 금액으로서 생각하라. 그러므로 이런 국가 보장 정기 소득은 일종의 부다. 그것이 공식적인 수치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 린지 제이컵스(Lindsay Jacobs)와 동료들(2021)이 보스턴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을 위해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금과 사회 보장의 가치는 모든 부의 반에 해당한다. 그것들을 보태면 현저하게 더 낮은 부 불평등 수치가 나온다.

학교와 병원 같은 국가 서비스들도 역시 사람들에게 비재정적 편익들의 흐름을 제공한다. 그것들도 역시 자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다. 그것을 이 계속되는 서비스들을 산출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

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의 면에서 생각해 보라. 그러나 다시, 이런 부 형태는 계산되지 않는다. 고도로 발전된 복지 국가들을 가진 몇몇 나라에서는, 이 국가 급부금들과 서비스들의 자본 가치는 모든 다른 형태의 개인적 부를 훨씬 능가할지 모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은 강력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평등화 효과를 가진다.

이 뒤죽박죽인 회계는, 예를 들어, 미국 통계가 개인연금을 포함하지만 공적 연금을 포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주택 소유를 포함하지만 주택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을 때, 특히 오도한다. 이런 누락들은 불평등을 과장하지만 거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

부정적 부. 추가의 통계적 난관은, 비록 그들이 반드시 가난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부정적 부(negative wealth)’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다는 점이다. 부자들조차도 대출금과 빚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의과 대학들을 갓 졸업한 학생들은 상당한 학자금 대출을 안고 일을 시작할지 모르는데, 비록 다수가 부유한 가계 출신이고 평균을 훨씬 넘는 미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옥스팜이 비판을 수용하기 전에, 자기의 연례 불평등 등급들에서, 하곤 했듯이) 그러한 사례들을 조잡한 통계에 포함하는 것은 외관상 부 불평등들을 부풀린다.

인적 자본. 부 통계로부터 가장 중대한 누락은 아마도 인적 자본(human capital), 즉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경험과 기술에서 쌓아 올

리는 가치일 것이다. 이것은 교육, 훈련, 기술 그리고 좋은 건강 같은 자산들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그들을 고용주들에게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한다. 이런 형태의 부는 측정하기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구 전체에 걸쳐 물리적 부보다 훨씬 더 평등하게 분산되어 있다. 다시, 그것의 누락은 부 불평등을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게 한다.

기타 혼란 요인

부 불평등 측정치들에서 뜻밖의 사태지만, 중요한 뜻밖의 사태는, (2008-9년 금융 붕괴 동안 일어났듯이) 만약 더 부유한 사람들의 자산들이 가치가 떨어지면, -비록 아무도 더 나아지지 않고 투자자들이 훨씬 더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측정된 평등은 상승한다. 우리는 평등을 번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과세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서로 다른 자산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되어, 그것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자산들의 과세는 자주 바뀌어, 부(와 그러므로 평등) 통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인플레이션도 역시 서로 다른 자산의 가치를 왜곡하여, (현금 저축 같은) 어떤 것의 가치를 잠식하지만 (금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것들의 수요를 증대한다.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가?

소득에 대해서와 같이, 생애 주기는 통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애에 걸쳐서 상승하므로, 나이가 더 많이 든 사람들은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저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부가, 그들의 소득보다 더욱더 현저하게, 증가한다. 설사 완전한 생애 평등이 있어서, 각자가 *정확하게 똑같은 총저축*을 가지고 퇴직한다고 할지라도, 통계들은 여전히 엄청난 불평등을 암시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젊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이 든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명이 올라감에 따라, 더 나이 많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존재하여, 차이를 더욱 과장한다.

아주 많은 개인적 부가 토지와 주택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들의 상승은 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영국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주택 가격들의 현저한 상승은 외관상 부 불평등 증가의 주요 동인(動因)이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대개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동산 자산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대개 젊은 사람들)은 그 증가의 기회를 놓쳤다.

참으로, 영국 사례에서는, 이 주택 불평등이 국가 행동으로 증가하였지, 그것으로 완화되지 않았다. 새 주택들의 건설과 오래된 주택들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계획 통제들(planning controls)은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지만, 약간의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이민 및 급부금 정책들은 수요를 올려,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끝난다. 다시, 우리는 국가 개입이 반드시 불평등의 교정 수단이 아니라 종종 그것의 원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의 왜곡

그러므로 지니 계수는 소득보다 더욱더 큰 부 불평등을 암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현실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지침이고, 사용되는 자료의 질에 대단히 민감하다.

많은 부를 개인들이 아니라 (의회들에 의해 통제되는) 정부들과 (주주들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들이 소유한다는 점도 또한 기억하라. 소수의 억만장자가 세계 부의 대부분을 통제한다는 관념은 과장이다. 그리고 하여간, 만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분별 있게 저축하며, 현명하게 투자해서, 경제 성장과 일반 번영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할 어떤 것이 아닌가?

5 국제 비교

세계 불평등 설화

세계 불평등에 관한 설화는 잘 알려져 있다: 불평등이 수십 년간 증가해 오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수조(數兆)를 벌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수조씩 떨어지고 있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세계 부의 ⅔를 소유한다; 상위 10위 억만장자는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들 사이에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빛을 지고 있다; 상위 1퍼센트는 하위 50퍼센트의 두 배만큼 많이 세계의 경제 성장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들은 빈곤에 그리고 보건 의료, 주택, 위생, 교육 및 기회에 대한 빈약한 접근에 반영된다.

자료 문제들. 위에서 논의된 자료 수집의 문제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런 주장들에 회의적이어야 한다. 단 한 나라 안에서조차도 정확한 측정치들을 얻는 것이 몹시 어려운데, 소득과 부 자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정확도로 수집될 때, 나라 사이에 비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환율 같은 뜻밖의 사태들도 역시 사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일반 물가가 낮으므로, 그것들은[가난한 나

라들은] 더욱더 가난해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원(原) 가격들 대신에, 구매력 평가(平價)(purchasing power parity)를 사용함으로써 보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중 토론에서 제안되는 수치들이 이것을 반영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항상 현명하다.

신뢰할 수 없는 설명들. 세계 불평등의 전통적인 설명들도 역시 친숙할 뿐만 아니라 의심스럽기도 하다. 식민주의와 노예제가 생각나는데, 하기가 식민지들이 점령 강국들에 편익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도 했다. 노예제는,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듯이, 도덕적으로 비열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경제학이기도 했다.

자연 자원들에서 차이들도 역시 열거되는데,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지역들은 이 이점이 없어도 번영했을지라도 그렇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러한 잠재적 부가 지배자들, 연고자들 혹은 과두제 집권층의 일원들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일 것이다—그런 내부자들에게 약탈하게 허용하는, 법의 지배의 결여가 중요하듯이.

기아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도 역시 비난받는다; 그러나 시장들이 작동하도록 허용될 때, 기아는 대개 제거되었고, 상승하는 [생활] 수준과 국제 협력은 자연재해들로부터의 인명 손실을 크게 줄였다.

또 하나의 관념은 가난한 나라들이 대체로, 수요가 제한된, 상품들을 수출하는 데 의존하므로, 그들이 항상, 수요가 무한한, 제조품들을 생산하는 나라들에 뒤처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난한 나라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선진 기술로 전진하여, 이 주장을 서서히 약화했다.

마지막 설명, 세계화(globalisation)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수입품들이 몇몇 가난한 나라 생산자[의 물건들]보다 저가로 [더 많이] 팔리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다. 반면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 소득은, 부유한 나라들이 작업을 그들에게 외주함에 따라, 막대하게 상승했다.

기타 설명

더 설득력 있는 설명들이 있다.

문화적 요인들. 몇몇 지역에서 여자들이 집 밖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나 낮은 지위의 집단들에 전문 직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은, 문화적 차이들이 명백히 중요하다. 종종 서로 다른 종교적 혹은 인종적 집단 사이 전쟁들이나 내전들은 투자와 성장을 방해한다. 때때로, 그러한 폭력은 한 나라가 민주적 동의를 통해서보다 강압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발화한다; 바꿔 말하면, 시민적 제도들도 역시 중대하다.

제도 및 정책 차이들. 그다음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해외에서 더 값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시도－같은 정책 실수들이 있다. 비슷하게, 중앙 집권적 경제 계획과 생산도 민간 투자와 기업심을 구축(驅逐)할 수 있고, 심한 정치적 불평등을 양성할 수 있다.

참으로, 아마도, 국제 평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종종 정부 자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소기업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 성과가 나쁜 국립 학교들, 유인을 악화하는 높은 세금, 공채 그리고 지지자에 대한 관직 제공은 모두 나라들을 억누를 수 있다. 외국 정부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 설탕이나 커피 같은 단일 작물들에 의존하는 많은 가난한 나라는 높은 보호주의 무역 장벽 때문에 자기들의 재화가 미국과 유럽 연합 같은 부유한 시장들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매겨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자본 축적. 똑같이 결정적인 것은 자본 축적이다. 공장과 기계 같은 자본재들은 공동체들이, 그것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을 사용하여 훨씬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대략 250년 전에, 산업 혁명은 이 간단한 생각에 기초하여, 선진국들에서 자기 보강적인 번영 주기를 점화하였다.

비록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이 비슷한 전략을 대개 추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부와 자본(인적 자본을 포함한다: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접근은 투자를 요구하지만, 한 나라의 생산성을 크게 높인다)을 쌓아 올릴 시간이 더 적었다. 여러 사하라사막 이남 나라 같은 몇몇은 국가 사회주의 같은 다른 전략들을 추구함으로써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낭비했지만, 지금은 비슷한 경로상에 있다.

그러나 자본을 쌓아 올리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결국, 선진국들은 약 250년이 걸려서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 도달했다(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은 그 이전에, 법의 지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 교육 그리고 상업의 편익들에 관한 이해(理解) 확대를 포함하는, 자유주의

제도들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나라들을 평등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장기 전략은 그들이 자본 축적 과정을 가속하도록 돕는 것일지 모른다.

젊은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애 주기에 걸쳐서 부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또한 기억하라; 그리고 세계 인구의 반이 30세 미만이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인구의 반이 20세 미만이다. 대조적으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반이 40세 이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개개 시민들은 자기들 자신의 인적 및 물적 자본을 쌓아 올리는 데 그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은 다시 오래된 부유한 나라들과 신흥의 가난한 나라들 사이 현재의 불평등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시간에 걸쳐서, 향상되는 보건 의료, 교육, 자본 축적 그리고 시간은 그것[불평등]을 침식할 것이다.

불평등, 빈곤 그리고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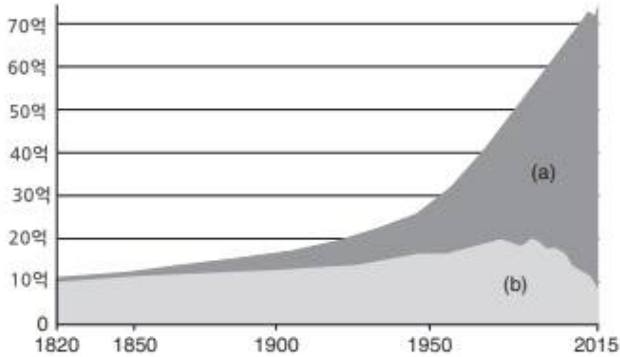
정책 연구자 팀 워스탈(Tim Worstall)이 2019년에 지적했듯이, IMF는 지니 ‘스위트 스팟(sweet spot; 골프 클럽, 테니스 라켓, 야구 방망이 등에서 공이 맞으면 가장 잘 날아가는 부분)’이 있다고—약간의 불평등은 나라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을 돕지만, 너무 많은 불평등은 그것들의 경제 성장에 타격을 가한다고—믿는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IMF의 스위트 스팟이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그저 조금 더 많은 평등만을, 영국에서는 대략 같은

평등을,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훨씬 더 적은 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렇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들이 내부적 재분배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지만, 더 부유한 나라들은 그것으로 자해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때 IMF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있을지 모른다. 더 큰 평등이 경제 성장을 증대할지 모를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급속한 성장이 불평등을 올릴지 모를 이유를 상상하기는 쉽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가들이 열리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붙잡음에 따라, 그들의 소득은 다른 사람들의 소득에 앞서서 급등한다.

빈곤으로의 전진. 또한 (하루에 \$1.90 혹은 미만에 살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최악의 빈곤이 그렇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을 때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주장들을 믿기도 어렵다. 요한 노르베리(Johan Norberg)가 자기의 2016년 책 《진보(Progress)》에서 언급하듯이, 평균적으로 지난 25년에 걸쳐, 한 주에 거의 백만 명이 하루 \$1.90 빈곤에서 벗어났다.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⅔가 하루 \$1.90 혹은 미만에 살았다. 세계화와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에는, 그것은 대략 ⅓였다. 1990년까지는, 그것은 그저 ⅓ 이상만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그것은 열 명 중 한 명이다(모든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

그림 2 극빈 상태에서 사는 세계 인구, 1820년에서 2015년까지



출처: Roser and Ortiz-Ospina (2013); Ravallion (2016)과 갱신된 World Bank (2019).

주: (a) 극빈 상태에서 살지 않는 사람 수.

(b) 극빈 상태에서 사는 사람 수.

이 자료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역사가들이 어떻게 이 추정치들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Hasell and Roser (2019)를 보라.

그리고 그것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1990년 \$1.90 빈곤 수치는 거의 19억 명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세계 인구가 1/3만큼 증가했으므로, 우리는 하루 \$1.90 빈곤이 지금까지는 25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할지 모른다. 사실상, 그것은 7억으로 내려갔는데, 대개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다. 그때조차도, 그것은 나이 지리아, 콩고, 적도 기니, 남수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대개 세계 무역 체제에 잘 통합되지 않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은 대개 사라졌다. 대체로, 하루 \$1.90 빈곤은 이 세계에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상, 무역과 세계화는—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들로 보강되어-빈곤과 불평등 양쪽 다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인 것 같다. 더 시장 지향적인 경제들에서 창출되고 확산하는 부와 사회주의 독재 체제들의 빈곤, 불평등 그리고 계층제들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든 전후 동서독이나 오늘날의 남북한을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필립 부스(Philip Booth) 교수와 벤 사우스우드(Ben Southwood)가 2017년에 언급했듯이, 베트남에서 평균 임금은 1980년대 초기에 연간 그저 \$100뿐이었지만, 그 후 세계화 기회들이 그것을 그 금액의 20배로 끌어올렸다; 지금 거대한 수출국인 중국에서 평균 [임금]은 오히려 35배에 가깝게 올랐다. 우리의 더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는 또한 더 평등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있기도 하다.

6 부자들은 더 부유해짐이 틀림없는가?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2017)는 부로부터의 수익이 항상 일반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크다(혹은 그가 표현하듯이, $r > g$)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 소유자들은 보통 노동자들보다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한다. 이것은, 그는 말한다, 부자-빈자 분리를 깊게 하고 영구화해서, 총부(總富)의 증가하는 몫을 가진 금리 생활자들의 귀족 계급을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왜, 300년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들 후에, 이런 자본 소유의 귀족 계급이 세계의 전체 부를 이미 축적하지 않았는가? 피케티는 자본이 전쟁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소진된다고—그러나 그다음 그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응답한다. 그래서 자본에 기반을 둔 부의 축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는 최고 부자들에 대해 80퍼센트까지 오르는 누진적 세계 부유세를, 더 높은 상속세와 함께, 제안한다.

부는 불확실하다

피케티의 비판자들은 전쟁이 자본의 축적—과 유지—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는 많은 요인 중 그저 하나일 뿐이라고 한탄한다. 하여간 어떤 수

익이든 날기 위해서는, 자본은 창출되고, 키워지며, 관리되고, 유지되며, 현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의 소유자들은 그런 단계들의 어떤 것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종종 실패한다. 설사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나 그들의 상속자들은 실수(mistakes), 오산(miscalculations) 그리고 불운(misfortunes)을 통해서 쉽게 그것을 다시 잃을 수 있다. 참으로, 로버트 아놀트(Robert Arnott)과 동료들에 의한 2015년의 연구는 상속된 가족 부의 반이 약 10년 안에 상실된다고 암시한다. 가족 재산들은 상승하고 하락하며, 《선데이 타임스 부자 명부(Sunday Times Rich List)》나 《포브스 억만장자 명부(Forbes Billionaire List)》에 매우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는 또한 그것을 끊임없이 재투자하기보다 그것을 소비함—바꿔 말하면 그것을 쓰고 즐기—으로써도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잠sett지 타타(Jamsetji Tata), 빌 게이츠(Bill Gates),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 그리고 세인스베리(Sainsbury)가와 웨스턴(Weston)가처럼) 자선 운동들에 기부함으로써도. 그렇지만 피케티는, 하여간 물 주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혹은 번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처럼, 자본이 그것의 소유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성장 능가 수익(growth-beating returns)을 쉽게 계속해서 낳을 것으로 상상하는 것 같다.

모든 자본 투자는 위험(risk)—피케티의 책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언급될 때도 단지 지나가는 말로 언급되는 단어—을 수반한다. 제품들과 회사들은 실패하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자들에 굴복하여, 자기들의 후원자들에게 수익이 낮거나 가치 없는 투자들을 남겨 둔다. 위험

은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자본에 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100년 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작은 위험조차도 피케티의 $r > g$ 를 무효로 한다. 서양 경제들에서는, 자본에 대한 수익은 1980년대 초기 이후 하락해 오고 있고, 위험은 수익을 더욱더 불확실하게 한다.

기타 부 형태

자본 소유자들과 근로자들이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또한 기억하라. 근로자들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자본 소유물을 주는, 연금 및 저축 계획들에 투자한다. 그리고 피케티는 가장 중요하고 널리 공유되는 형태의 자본, 즉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간과한다. 이미 설명되었듯이, 이것은 우리가 모두 소유하고 투자하는 어떤 것—기술을 획득하는 것, 대학에 가는 것, 언어를 배우는 것,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는 것, 기타 등등—이다. 보상의 면에서, 그것은 아마도 우리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최상의 투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부유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

물적 자본이나 금융 자본이 없지만, 자기들의 인적 자본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정말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가난한 이민 집단들의 성공을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영국의 상위 1퍼센트 소득자의 ¼은 이민자들이고, FTSE 100(파이낸셜 타임스 주식 거래 100사;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100) 최고 경영자의 ⅓ 이상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상위 포천 500(Fortune

500) 회사의 1/5은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 1/5은 이민자들의 자식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참으로, 그런 사람 중 약간은 나라 사이를 이동한 부유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수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빈곤에서 성공으로의 이야기이다.

평등 없는 번영

피케티는 소득이 가속한 19세기 ‘도금 시대(Gilded Age)’에 관하여 만 족스레 이야기한다—하지만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률도, 최저 임금도, 복지 국가도, 또한 흔히 평등을 강화할 것으로 상상되는 많은 다른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때 전기, 전보, 타자기 그리고 재봉틀 같은 발명품들이 산업 생산성을 끌어 올렸는데, 이것들이 임금 상승, 더 짧은 근로 시간 그리고 더 큰 구매력을 가져왔고, 그것들로부터 모든 경제 집단이,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다. ‘인구의 가난한 반(半)은 오늘날에도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만큼 가난하여, 1910년에서와 똑같이, 2010년에서도 총부(總富)의 가까스로 5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생산성 급상승이 *모든 사람*을 그들이 1910년에 그랬던 것보다 아주, 아주 더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특히 미국에서, 소득의 ‘대 압착(Great Compression; 소득 및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은 친노동조합 법률들이나 복지 국가 확대의 행복한 산물이 아니라, 전후 무역 상승의 행복한 산물이었다.

만약 당신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싶다면, 피케티의 재분배 정책들이 좋은 전략이다. 자본 소유자들을 벌하는 나라들은 국민이 자본을 창출하고, 축적하며, 보존하고, 투자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덜 가치 있게 만든다. 그것들[그 나라들]은 더 적은 국내 및 해외 투자 그리고 생산 사업들에 자금을 덜 더 적은 저축자를 가진다. 그들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하는 것은 더 낮은 성장·생산성 및 번영으로 귀착하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해친다.

7 도덕적 주장의 의문시

평등에 대한 경제적 찬성론자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논거들도 또한 있다. 그것들은 평등 원칙이 우리의 보편적 인간성 같은 *더 높은 가치들로부터 도출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지 모른다; 혹은 평등이 *그 자체* 산인 데, 왜냐하면 평등이 정당하거나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혹은 그것이 신뢰와 사회적 조화 같은 *다른 가치들을 산출한다는* 생각에. 이것들 각각을 고찰해 보자.

보편적 인간성 논거

평등에 대한 *보편적 인간성*(universal humanity) 논거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인간들이 똑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슷한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 제안에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우리는 정체성으로부터 평등을 추론할 수 없다. 숫자들 3과 5는 그것들이 둘 다 정수라는 정체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없다. 비록 사람들은 인간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born equal),’고 입심 좋게 이야기할지라도, 명백한 현실은 그들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육체적, 지적 그리고 도덕적—면에서 다르다. 어떤 특정 특징이든 평등화를 정당화하는 데 보편적 인간성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인간 정체성의 본질적인 표시로서 모든 다른 것들을 능가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부나 소득이 합격할 시험이 아니다.

몇몇 비판자는, 설사 인간들의 자연 상태가 평등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반드시 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주장하기도 한다.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651)가 표현했듯이, 그것은 삶이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음’ 상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판자들은 불평등한 사회가 더 나은 결과들을 낳을지 모른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타고난 평등 논거가 어떤 비중이든 가지기 전에 누구든 이것이 그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인간성 형태들. 우리가 소득이나 부에서 보는 차이들이 어떤 사람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그저 비인적 경제 과정들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소득을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에 기초하여 배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평등이 하여간 우리의 야망이 될까? 아마도 우리 인간성의 더 나은 지표는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결심하고 가장 불운한 사람들에게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포로서 그들의 **당연한(duel)** 고려와 존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

지, 반드시 **평등한(equal)** 고려와 존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지 모른다.

참으로, **불평등한(unequal)** 사회들에서 더 큰 고려와 존중이 있을지 모른다. 전문화에 기초한 경제들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서로 다른 기술에 대해 경제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친절이나 용기 같은, 다른 척도들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료들에 의해 이 다양한 척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당국자들에 의해 하나의 단일 척도의 강도(強度)에 따라 평가되는 것보다 아마도 더 나을 것이다. 보편적 인간성은 우리가, 사람들의 유사점들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차이점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소득이나 부 같은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대우할 것을. 자유로운 개인들이, 비재정적 야망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야망을 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 사이 소득 및 부 불평등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성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특징이 아니다.

존 롤스: 평등과 공정

아마도 경제적 평등화에 대해 합리적 도덕적 옹호론을 제공한 가장 뛰어난 시도는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일 것이다. 그의 방식은 사고(思考) 실험이다: 만약 우리가 사회를 설계해야 하지만,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분배를

설계할까? 그의 대답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가장 덜 혜택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강한 안전망을 가진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평등이 아니라 가망. 그것은 대학교수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학교수들은 악명 높게 위험 회피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하고 이 도박에서 서로 다른 내기를 거는 것도 당연하다. 많은 사람은 덜 평등한 사회에서 ‘크게 성공(making it big)’해서 결국 더 잘살게 될지 모른다.

수학적으로, 합리적인 도박꾼은 최소 안전망을 가지기를 선택할 것이지만, 평등을 가지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는 도박꾼들에게 그들의 선택들의 똑같은 수학적 *기댓값*(expected value)을 줄 것이다—그래서 하여간 평등 선택지에 관해 독특하게 합리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도박꾼들이 사회가 가질 부나 소득의 양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의 분배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가난하고 침체하지만 더 평등한 사회보다 부유하고 성장하지만 덜 평등한 사회를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혹은 그들은 덜 평등하지만 이동성이 있는 사회를 선택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유인들을 제고하고 진보와 번영을 증대할 것이라고 믿고서다. 혹은 그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사회적 지위 같은, 다른 면들에서 평등한 사회를 선택할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롤스의 시나리오에 그러한 가능성들을 허용하지 않고 경제적 평등 외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배제한다.

선택적 정보. 롤스는 또한 도박꾼들이 ‘타고난 평등(natural equality)’을 공유한다고 가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특별한 권력이나 능력을, 선택되는 사회를 자기들에게 더 적합한 방식들로 재구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에서보다는 합리적 근거들에서 자기들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오직 불평등한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을 때만 그들이 불평등한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소위 ‘타고난 평등’은 실제로 사회들을 형성하는 바로 그 인간 차이들을 자동적으로 가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유능하고 야망 있는 사람들은 평등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팔꿈치로 밀어제치고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불평등한 사회를 선호할지 모른다.

도박꾼들은 자기들이 내기를 걸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사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명백히 약간 친숙해야 하지만, 자기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친숙해서는 안 된다. 롤스는 그들이 모두 **정의(justice)**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가 이것을 **공정(fairness)**으로 정의하므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선택들을, 다양성이나 이동성 같은 다른 가능성들보다는, 평등 쪽으로 민다. 바꿔 말하면, 그는 자기의 도박꾼들과 그들의 도박을, 가족이나 우수함이나 자유 같은 모든 다른 사회 측면에 우월한, 평등 주장을 불가피하게 지지하는 방식들로 설계한다. 참으로, 《정의론》에서는 자유와 그것의 가치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족과 양육이 명백히 불평등의 주요 원천이지만, 롤스는 그것을 자기의 소위 합리적 평등 사회에서 삭제하는 것에서 손을 떼다.

봉사하는 것 혹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우리가 부와 소득을 얼마나 많이 평등하게 하건,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른 인간 차이들이 많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불평등하게 한다는 사실이 맡겨진다.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 롤스는 타고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기들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오직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타고난 재능들이 운의 문제지만, 그것은 그것들이 ‘받을 자격이 없고(not deserved)’ 따라서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성취는 거의 항상, 체력이나 기술 같은, 약간의 타고난 자질에 뿌리박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메달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deserve),’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에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롤스의 주장은, 비록 대단히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만족스럽다. 정의는 단지 공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것이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의로운 사회(just society)는 사람들을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차이들을 참으며, 그들의 자유를 굳게 지키고, 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강제를 최소화하는 사회이다. 만약 우리가 평등한 사회의 선입관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결과들의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

8 실제적 주장의 의문시

그렇다면, 평등이 얼마나 크게 그 자체 도덕적 선으로서나, 정의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에서 생기는 선으로서, 판단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평등이 얼마나 크게 우리가 다른 가치들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도 또한 의문들이 있다.

《수준기》의 오류

케이트 피켓(Kate Pickett)과 리처드 G. 윌킨슨(Richard G. Wilkinson) (2010)이 쓴 《수준기(The Spirit Level)》의 명제는, 불행에서 비만, 정신병, 유아 사망률, 나쁜 학교 그리고 살인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소득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시기심, 불신 그리고 탐욕같이, 불평등이 일으키는 심리적 피해의 결과 일지 모른다고, 저자들은 암시한다. 자기들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를 그것들의 불평등 면에서 등급 짓고 그다음 그것들을 다양한 척도에서 평가하며, 거의 모든 사례에서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비록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증거는 아직도 수천의 독자에게 불평등이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정말 일으킨다고 확신시켰다.

그러나 많은 비판자는 그 책의 주제,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것들에 기초한 인기 있는 결론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저명한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이(John Kay)는 상관관계라고 주장된 대부분 것이 산점도(散點圖)들로 표시되고 그것들을 관통해서 ‘추세선(trend line)’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례에서 너무 많은 ‘이상치(outlier)’ 나라가 있어서 (그리고 종종 ‘내좌치(內座值)들(inliers)’이 너무 거의 없어서) 추세선이 없으면 자료가 오히려 완전히 무작위적인 산점으로 보인다.

유리한 것만 고른 자료. 《수준기 망상(The Spirit Level Delusion)》에서, 크리스토퍼 스노든(Christopher Snowden) (2010)은 어느 나라들이 포함되거나 배제되는지의 선택이 연구 결과에 막대한 차이를 가져오고 상관관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무력하게 하거나 뒤바꾸기조차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준기》 저자들은 자기들의 선택들에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그리고 각 사례에서 자기들이 평가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큰 나라들로 자기들이 국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스노든은 (기대 수명 같은) 몇몇 척도가 무슨 나라들이 포함되는지에 아주 민감하다고, 그리고 싱가포르, 한국, 홍콩 그리고 체코 공화국의 누락들에 덧붙여서 그 이야기에 들어맞지 않을지 모르는 다른 나라들의 산발적인 배제가 ‘유리한 것만 고르기(cherry picking)’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원인들. 보건, 범죄 혹은 기타 척도들에서 나라 사이 차이들이

불평등에서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스노든은 말한다. 예를 들어, 나쁜 건강은 빈곤, 열악한 주택, 나쁜 교육, 육체 혹은 농업 노동에서의 장시간, 그리고 해당 나라의 나이 측면(age profile) 때문이라도 더 생길 것 같다. 유아 사망률들은 불평등보다 결혼 연령, 의술 그리고 자료 수집에서 차이들에 더 그럴듯하게 관련되어 있을지 모르고, 유아 사망률은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아주 희박하여 어떤 차이들도 부적절하다(비록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만, 싱가포르-고도로 불평등한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율들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상관관계라고 생각되는 것, 비만은 불평등보다 서로 다른 나라의 식사 및 생활양식 전통들을 더 반영할 것 같다. 서로 다른 담배 및 술 소비율은 이 제품들에 부과되는 세금들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정신병 비율들도 불평등이 일으키는 괴로움이라고 생각되는 것 외에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많은 가난한 나라는 정신 장애들에 관해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정신과 의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유한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더 많은 환자가 진단 받는 것을 경험한다.

바로 그 복잡한 원인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수준기》 상관관계들에도 적용된다. 저자들은 미국같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들이 더 많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낸다고 주장하여, 불평등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범죄율보다는 처벌 문화들에 관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몇몇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가 높은 폭력 범죄율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적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다시, 일본과 스웨덴에서 높은 재활용률들은 그러한 고도로 평등한

사회들이 더 큰 사회적 헌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지역들에서 재활용이 강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일지 모른다. 사회적 헌신의 더 나은 지수는 사실상 미국의 세계 제1위 자선 기부일지 모른다.

불가능한 척도들. 아마도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가장 어려운 현상은 평등과 행복 사이 상관관계라고 주장되는 것일 텐데, 행복은 측정하기가 악명이 높도록 어렵(고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핀란드는, 자기가 이웃 러시아에 관해 끊임없이 걱정함에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의[핀란드의] 작은 크기와 동질성의 결과일지 모르는데, 이 점이 아마도 신뢰와 확신을 촉진할 것이다. 혹은 그것은 인구의 ⅔가 루터 교도들이고, 그들의 교회가 사람의 운명에 만족하기를 가르친다는 점일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만약 행복 척도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유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들과 상관없이, 가난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점이다. 참으로, 연구자들 조너선 켈리(Jonathan Kelley)와 마리아 에번스(Mariah Evans) (2017)에 의한 광범위한 여론 조사는 불평등이 행복을 서서히 해친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드러낸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불평등은 기회와 상향 이동성의 지표로 여겨진다; 선진국들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불평등이 시기(猜忌)와 사회적 긴장을 발생시킨다는 암시도 역시 의심스럽다. 다시, 어느 쪽 관념도 측정하기가 어렵다; 무엇이 사회적 긴장의 지표로서 생각되어야 할지는 견해의 문제다—내전, 쿠데타, 폭동,

공격적인 소셜 미디어 포스트(social media posts)? 그리고 역사에 걸쳐서, 전쟁과 폭동은, 반드시 단지 내부적 사회적 긴장만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났다. 아마도, 불평등이 몇 세기 전에 훨씬 더 컸을 것이지만, 시기는 더 적었을 것이다; 혹은 어쩌면 불평등이 통상의 상태라고 더 많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시기 외에 많은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 초점의 잘못된 겨냥

많은 사회적 척도를 불평등에 대비해 비교함으로써, 《수준기》는, 비록 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척도들이 의심스러우며, 현실이 매우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불평등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터널 시야(tunnel vision)를 우리에게 강제한다.

존재하는 무슨 자료이든 다양한 인구와 서로 다른 가치, 문화, 종교, 민족성, 역사, 전통, 식사, 교육 수준, 복지 국가 그리고 가족 구조를 가진 넓은 집단의 나라에서 나온다. 노르웨이,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혹은 브루나이는 모두 부유한 나라지만 그밖에 공통적인 것을 아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소득 불평등은 아시아의 낮은 10대 출산율, 미국의 비만과 자선, 일본의 높은 자살률, 혹은 스칸디나비아에서의 높은 신뢰 수준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불평등이, 그것이 비난받는, 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도 학문적 합의도 그저 없을 뿐이다.

9 일터에서의 동일 임금

동일 임금의 모순

일터에서 평등하나 공정한 임금을 확립하는 방법의 문제는 평등 관념을 실행으로 바꾸는 더 넓은 문제들을 구체화한다.

동일 임금 모순들.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근로자들에게 동일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극단적인 사례로 시작하자. 만약 근로자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질병이나 가족 책무나 시간 여기기까지 때문으로, 서로 다른 시간 일한다면, 그런 집단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결국 근로 시간당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영국 심리요법 회사 스피(Spill)의 사이먼 벤틀(Simon Benton)같이) 자발적으로 동일 임금 정책을 시도한 CEO들이 손해를 입고 발견했듯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총노동력 사이 갈등에 이른다. 그 결과는 불행한 일터들과 떨어지는 생산성이다.

어쩌면 그것은 사회주의 나라들조차도 동일 임금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동가들이 보통 간단히 ‘평등(equality)’보다도 ‘더 많은 평등(more equality)’ –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 사이 최대한 비율들, 최저임금과 최대 임금, 기타 등등 – 을 요구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 아래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설사 더 묶은 형태로일지라

도, 발생한다.

또한, 동일 임금 정책은 서로 다른 일자리 사이에 많은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즐겁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것들은 ‘부수입(perks)’이 딸려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것들은 어느 사람이 그것들을 시작조차 할 수 있기 전에 훈련에 시간과 노력의 대규모 초기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누구라도 곧바로 취직할 수 있을 일과 똑같은 임금을 받고서, 누군가 왜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일을 하기로 동의해야 할까?

만약 우리가 ‘동일 임금(equal pay)’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 일자리들에서 이런 차이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상하려고 하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것들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것은[그것들의 가치는] 오직 해당 개인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상하기를 원한다면, 숙련 근로자들이 똑같은 일을 더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숙련 근로자들에게 덜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가?

불평등한 가족들. 또 하나의 문제는 고용인들이 서로 다른 크기의 가족들을 가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동일 임금을 가지고는, 1인 가구는 두 사람이지만 단지 한 소득자만 가지고 있는 가구보다 결국 상태가 더 낮게 될 것이고, 네다섯의 가족보다 결국 아주 훨씬 더 낮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태가 좋게 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행동 방식. 근로자들에게 동일 소득을 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거나 자기들의 가족에 돈을 넘겨주기로 선택할지 모른다. 이것에는 불의가 없고—그것은 다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참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분별과 책임을 칭찬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급하는데도, 어떤 가족들과 개인들이 다른 가족들과 개인들보다 결국 상태가 훨씬 더 나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소비가 다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비싼 의료나 주택 수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유명 디자이너 옷(designer clothes)이나 가족 결혼식에 쓰기로 선택할지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을 그저 낭비할 뿐이어서, 자기들을 상태를 나쁜 채로 남겨 둘지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건, 그 결과로, 그들의 동일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서로 다른 금액을 가지게 된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있는가?

비슷한 일에 대해 어떻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지급되는지 사이에 ‘성별 격차(gender gap)’가 있다는 점이 통례적으로 주장되고, 그 점은 차별과 불공정의 표시로 여겨진다. 비판자들은 남자와 여자들 사이 평균 임금률에서 차이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40퍼센트만큼 높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최고 소득자 가운데는 여자가 거의 없다. 대응하여,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은 대기업들이 남성들과 여

성들에 대한 그들의 임금을 공표할 것과 그것들을 같게 하는 것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좁혀지는 격차. 그러나 (적어도 선진국들에서는) 현재 현저한 성별 격차가 없다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정책들이 근거가 없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 나이 든(older) 근로자 사이에는 확실히 성별 격차가 있지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차별과 큰 성별 임금 격차들의 시절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인들이 매년 증가를 얻었을 때, 그런 임금 격차들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지급될 가능성이 더 크다.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격차는 대개 사라졌(고 2013년에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기록한 미국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그것은 거의 전체적으로 사라졌다).

격차의 기원들. 여전히 임금 격차가 있지만, 그것 대부분은 성별 격차라기보다 돌보기(caring) 격차인데, 왜냐하면 여자들은 훨씬 더 흔히 아이들을 기르는 데 그리고 친척들을 돌보는 데 주도권을 잡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ZA 노동 경제 연구소(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독일명은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로 본에 본부가 있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돌보는 사람의 약 ⅔가 여자이고, OECD와 기타 기구들로부터 추정치들은 다양한 나라 전체에 걸쳐 비슷한 우세를 암시한다.)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 유연 혹은 시간제 근로를 더 추구할 것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제 그리고 유연 근로자

들은 고용주들에게 덜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관리하기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돌보기 책임을 지고 있는 많은 여자는 유연성 있는 시간이 고용주들에게 문제를 더 적게 일으키는 저임금 혹은 저급 일자리를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인다.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상향 궤도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들의 20대와 30대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몇 년 휴직하거나 단축된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그 평생 진행에서—현저하게 뒤에—뒤쳐질 것이다. 그들이 일을 재개할 때, 그들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시 오르지만 (임금이 경험과 근속 연수들을 반영하므로) 그들은 상근자들이 그때까지 달성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절대 수준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

다른 설명들.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있다. 높은 한계 세율들과 관대한 사회 급부금들은 돌보기 책임을 진 여자들을 더 오랫동안 일을 쉬도록 부추겨서, 그들을 더욱더 뒤에 남겨 둘지 모른다. 기질에서도 성별 차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퓨 센터(Pew Center) 연구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즐기고, 안전을 제공하며, 돌보기 책임을 위해 자기들에게 시간을 내게 허용하는,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남자들은 승진과 승급으로의 미끄러운 기둥을 더 기꺼이 기어오른다고 암시한다.

(단체 교섭이 지배하는 곳에서 더 작은 임금 격차가 있다는 사실로 확인되듯이) 여자들은 또한 임금 교섭에서 덜 공격적일지 모른다. 여자들이 관례상, 더 나이 많고 그러므로 임금 진행에서 이미 앞서 있는, 배

우자를 맞이하는 문화들에서는, 그들은 더 낮은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지 모른다. 덧붙여서, 여자들은 다른 일자리 선호를 가지고 있어서, 소기업에서나 비영리 단체에서의 일자리, 그리고 더 즐겁고 덜 위험한 일 자리를 맡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은 그것들의 본질상 보수가 더 적다.

통계적 오류들. 원(原) 통계도 역시 오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들의 분포가 아주 기울어져 있으므로, 평균(mean)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이 얻으려고 일할 혹은 일할 수 있을 것에 대해 (법정 최저 임금 같은) 하방 한계가 있지만, 임금에 대해 상방 한계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더욱더 많은 여자가 유연 혹은 시간제 (그러나 보수가 낮은) 일자리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한두 사람의 억만장자가 성별 평균(averages)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다. 대부분 보통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신 중위(中位; median) 임금을 고찰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위와 아래로 똑같은 수의 사람이 있다. 거기서는, 우리는 훨씬 더 적은 성별 차이를 발견한다.

타고난 차이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몇몇 연구에 따르면, 어쩌면 거의 모든—성별 임금 격차라고 생각되는 것은 차별이나 불공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남자들의 타고난 생활방식 선택들에 기인하는 것 같다. 정부들은 무상 보육, 혹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직했던 여자들에 대한 재훈련 프로그램, 혹은 다른 조치들 같은 정책들을 가지고 이 차이들을 다시 균형 잡으려고 시도할지 모른다. 그

러나 근로와 돌보기에 대한 성별 태도들에서 사회적 혁명이 있지 않은 한, 이 차이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 같다.

CEO들은 자기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정월 초는 FTSE(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 런던 증권 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가 1995년 공동으로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수-오킨이 주)나 다우 존스(Dow Jones) 회사들에서의 CEO들이 그들의 보통 근로자들이 한 해에 버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벌었다는 연례 불평들을 제기한다. 이것은 크게 불공정하다고-CEO들이 장시간 일할지 모르지만, 다른 근로자들보다 그 정도로 더 오래 일하지 않는다고-주장되고, (최고 끝단에서, 다른 끝단에서의 ‘최저 임금(minimum wage)’을 반영하는) ‘최고 임금(maximum wage)’을 부과함으로써, 혹은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회사 고용인들의 임금에 대비한 임원들의 보수의 비율에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이 불공정을 억제할 제안들을 동반한다.

불평등한 태도들. 대조적으로, 지도적인 예술가들, 배우들, 경주용 자동차 운전자들 혹은 미식축구 선수들이 매우 많은 급료를 버는 것을 불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주 거의 없다. 그들은 많은 사람, 때때로 수백만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그 즐거움에 대해 지급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CEO들도 자기들의 많은 주주에게 큰 차이를 가져오고, 이들도 역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창출

하는 부에 대해 지급한다. 훌륭한 CEO는 회사의 가치를 엄청나게 증대할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한 CEO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의 투자자들을) 파산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회사 주주들은 성공적인 CEO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된다.

가치의 증가. CEO 보수는 확실히 높고,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때 세계화와 함께, 주요 주식 시장들에서 상위 회사들도 역시 규모, 복잡성 그리고 국제적 족적(足跡)에서 성장하였다. 그러한 크고 복잡한 국제 기업들을 관리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세계 제1인자 스포츠 유명인이 거의 없는 것과 똑같다. 그에 따라서, CEO 재능을 얻기 위한 경쟁 증가가 있는데, CEO들과 스포츠 스타들 양쪽 다의 보수가 높은 것이 예상 밖이 아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비판자들은 경영진 보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결정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CEO들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할 유일하게 객관적인 방식은 사건 후—그들의 도착이나 떠남이 회사의 주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2016년에 정책 분석가 샘 보먼(Sam Bowman)이 지적했듯이, 참으로 매우 상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Apple)은 창립자이자 CEO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사망했을 때 자기 가치의 5퍼센트(약 \$175억)를 잃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가치는 스티브 발머(Steve Balmer)의 2013년 사임 후 8퍼센트(\$200억) 상승했다. 같

은 해, 안젤라 아렌츠(Angela Ahrendts)가 버버리(Burberry)에서 떠난 것은 기업 가치를 £5억 이상만큼 줄였다. 이것들은 큰 숫자인데, 모두 단일 개인들 때문에 생긴다.

CEO의 일은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다. 그것은, 임금이 생산된 도구들의 수를 반영하는, 샅일과 같지 않다; 그것은 비전과 존재와 날카로운 안식(眼識)을 요구한다. 주주들은 만약 그들이 돈에 대해 자기들이 불충분한 수익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CEO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자기 CEO들의 봉급을 기꺼이 보증한다. 그들이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불평등 비판자들은 그들의 평가를 반대할 것이고, 입법적 힘의 뒷받침을 받을 것이다.

10 평등화 정책의 근원

윤리에서 정치로

도덕관념들이, 의심스러운 통계로 뒷받침되어, 정치 강령들로 바뀔 때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도덕관념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원하는(like)* 것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정책들은 그것들이 어떤 것이 되기를 *강제한다(force)*. 그것은 큰 차이점이다.

잘못된 가정들. 우리의 자연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공정 관념들로 많은 사람은 평등이 유일하게 도덕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들은 그 가정을 보강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통계와 유도적인 용어들에 의지한다. 그리고 (평등이 아니라, 빈곤에 집중하는) 민간 자선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가정은 정부가, 강제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지위에 책임이 없다는; 불평등이 사회에 의해 창출된다는; 그리고 빈자들이 환경의 희생자이지만 부자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조작자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 설화는 사람들이 소득과 부의 면에서 결국 어디에 처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서 노고, 야망, 기술 획득, 의지력 그리고 탄력 같은 요인들

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재분배의 정당화. 몇몇 대학 교수에게는, 평등 설화는 윤리 사고로부터 정치 행동으로 이동할 정당화(혹은 어쩌면 걸치장)를 제공한다. 정부들에서는, 그것은 사람들의 시기를 완화할 방식을 암시하고 정치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집합적 선(collective good)을 촉진하지 않는 어떤 차이점들도 평등화할 정치 강령에 대한 요구들이 이 사실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인간들을, 마치 그들이 오직 당국에 의해 선택되는 어떤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비개인화된(depersonalized) 면들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는데 관한) 윤리 관념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치 관념들에 봉사하게 만든다. 그러나 윤리가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지, 반대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등 결과의 불가능성

비물질적 차이점들. 경제적 평등의 도덕관념을 공공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급급하여, 우리는 인간들이 사물들을 그저 *가지기*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많은 *비재정적*(non-financial) 야망을 포함하여, 사물들을 창조하고 소중히 한다. 그리고 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식으로 다른데, 이것들은 대개 해가 없—거나 이롭기조차 하나: 어쩌면, 생물 다양성의 편익들 같이, 우리의 사회도 역시

우리의 다양성으로 더 안전해진다.

능력이나 양육에서의 차이들 같은 많은 다른 차이를 우리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보상할 수도 없다: 우리가 자극적인 어린 시절의 재정적 가치나 극도의 수줍음의 비용을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측정해서, 사람들에게 양쪽 다의 평등한 측정치를 줄까? 그러나 그때 인간 만족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목표를 충족하는 데서 오지, 우리의 외부의 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물들을 같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우리가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소득과 부—에 집중한다. 그것은 기껏해야 매우 부분적인 접근법, 최악의 경우 고도로 왜곡하는 접근법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불충분하다: 우리는 부와 소득을 같게 하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결국 평등한 편익을 갖게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록스타 문제. 그다음 록스타(rockstar) 문제가 있다. 설사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등의 처지에서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록스타가 연주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급할 것이다. 그들은 각각 그 저녁을 약간 더 가난하게 끝내고 록스타는 그것을 대단히 더 부유하게 끝낸다. 우리가 가지고 출발했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들의 끊임없는 재평가와 재분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거래들이 전적으로 자발적이므로, 누구에게도 어떤 해나 불의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당국의 사회적 비전 외에, 무슨 근거들에서

우리가 이 자발적인 교환을 뒤엎을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 중 서투른 기타 연주자는, 우리의 능력에서도 우리의 수익 능력에서도, 어떤 록스타와도 거의 같지 못하다. 우리는 어쩌면 최고 기타 연주자들의 손가락 한두 개를 절단함으로써 사물들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놀랄 만한 음악 연주를 자제하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그들에 대한 폭력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 모든 강제된 평등화를 위해서는, 기타 연주자들에 관해서건 소득자들에 관해서건,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의 위협이 필요하다.

그것이 의도된 평등을 낳기 위해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모순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설화는 평등화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강제된, 불평등한 대우가, 정의, 민권들, 자유, 가족, 번영 그리고 빈곤 제거 같은, 다른 생활 부분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갈등을 일으킨다.

불운의 보상

평등한 결과들을 달성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혼한 제안은 우리가 적어도 사람들에게 불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정한 가족에 태어나는 것, 눈이 머는 것, 강도를 만나는 것 혹은 희생자의 통제력을 넘어서 다른 불행한 일들 같은, ‘적나라한(brute)’ 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불운의 부담을 어떻게 측정하고 무슨 보상이 적합한지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보통의 문제와 별개로, 그러한 정책은, 모든 인간

생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혼합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운이 있다는 사실로 악화한다. 그것을 어떻게 분리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보상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상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결정할지 명백하지 않다.

적나라한 운과 선택 운. 개인의 통제력을 넘어선 사물들의 ‘적나라한 운(brute luck)’과 나란히—사람들의 의도적인, 계산된 도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의—‘선택 운(option luck)’이 있다. 예들은 당첨된 복권을 사는 것이나 파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할지 모른다. 적나라한 운을 보상하는 가치들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 일치가 있다(하기야 자유주의자들은, 가능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자기들을 구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것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선택 운에 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의견 일치가 없다.

하나의 주장은 우리가 선택 운을 보상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 책임을 소멸하고, 사람들이 불합리한 위험을 무릅쓰도록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택 운을 보상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손실이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자기들이 고도로 불확실한 모험사업에 착수하거나, 카드 게임에서 자기들의 집을 도박으로 날리거나, 마약을 남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선택 운을 보상하지 않는 정책]은 눈에 거슬리고 모순적인 결과들을 낳는다. 우리가 카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를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인간성은 헬멧을 쓰지 않음으로써 머리 부상을 겪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우리가 돕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경계선을 어디에 긋는지는 주관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다시, 자유주의자들은 불운의 희생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원조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어 돕도록 강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할지 모른다.

대부분 삶의 결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운, 상황, 판단, 노력, 적용, 기타 등등의 혼합이다. 설사 사물들을 적나라한 운과 선택 운으로 국한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 둘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이 책임이 있는지는 좀체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만, 단지 약간의 사람만 폐암에 걸린다. 많은 사람이, 교육과 사업으로의 도약판을 제공하는, 부유하고, 돌보며, 자극적인 가정에 태어나지만, 오직 아주 소수만이 억만장자가 된다. 어떤 사람의 성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는 양육에 기인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의 노고, 근면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는 다른 것들에 기인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참으로, 그들의 근면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로 그들의 양육의 결과인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적나라한 운 때문에 성공적이었는가? 다시 한번, 처음에는 간단한 것 같은 평등화 정책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11 평등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평등에서 형평으로

만약 완전한 평등이 불가능하고, 불운에 대해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등화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각각은, 그저 평등한 결과만이 아니라, 계층제적 결과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전략들. 예를 들어, 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평등한 정치적 및 법적 권리들*(equal political and legal rights)에 찬성하고 다른 점에서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홀로인 채로 놔두자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주관적으로 그런 권리들의 평등화를 소득, 부 혹은 사회적 지위 같은 다른 것들의 평등화 위에 둔다. 두 번째 자유주의 선택지는 그저 사람들에게 *평등한 관심과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을 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존중과 지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 가능성은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비슷하게 취급하는*(treat similar cases

similarly) 것—말하자면, 덕을 보상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보상되지 않는 불평등을 남겨 둔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제안한 네 번째 전략은, 모든 사람이 성취감을 주는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식품, 주거 그리고 교육 같은) 기본 자원들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능력들을 평등화(equalise capabilities)*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결과들(outcomes)*을 매우 불평등하게 남겨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능력들(capabilities)’을 측정할 혹은 우리가 그것들을 평등화했는지 알 명백한 방식이 없다. 그리고 무엇이 ‘기본(basic)’ 자원들로 여겨지는지는 견해의 문제이다. 비록 센의 접근법이 유용하게 우리를 다른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대우에 집중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에 기초한 특정 정책들은 논쟁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

사람들 필요의 대처

다양한 필요. 또 하나의 전략은 사람들을—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언명,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와 비슷한— 필요에 따라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need)’가 삶에 필요한 그저 최소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필요’로 여겨지는 것은 다시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더 큰 집이나 더 나은 옷을 ‘필요한지(need)’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

은 복수나, 마약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강렬한 ‘필요’를 느낄지 모른다. 우리는 이 의심스러운 ‘필요들’을 충족시켜야 할까?

평등한 물질적 재화들의 제공. 필요 접근법은, 무력하게 소득들을 평등화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가 대신 사람들에게 똑같은 꾸러미의 물질적 재화들—평등한 학교, 보건 의료, 주택, 식품, 운송, 기타 등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보편적 기본 서비스들(universal basic services)’은 사람들이 누리는 편익들을 평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무료 교육은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자식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다; 병든 사람들은 더 많은 보건 의료가 필요하다; 똑같은 주택은 대가족들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노동자들은 사무실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열량 식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택 근무자들은 통근자들보다 운송이 덜 필요하다.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보편적 기본 서비스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 차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끊임없는 불공정 불평을 낳을 것 같다.

이 접근법들의 위험들. ‘필요’와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전략들은 생산과 분배에 대한 막대한 국가 통제를 함축한다. 그것들은,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국가 장치와 그것을 자금 조달할 과세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막대한 권력, 재량 그리고 관직 임명권을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수중에 넣을 것이다(이것은 전혀 ‘평등(equality)’이 아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기본적인 재화의 국가 독점 제공은 혁

신, 진보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억누를 것이다. 우리는 물론 그것들이 사적으로 생산되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배급 카드를 줌으로써 이런 재화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배급들에 접근권을 얻는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대한 권력 원천이다.

사회에 대한 공헌. 이 두 접근법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일과 노력을 피하는 게으름 부리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똑같은 재화들에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서 또 하나의 제안이 유래한다: 사람들이 오직 사회에 대한 자기들의 공헌에 비례해서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시장 경제는 이미 이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산출하는 가치에 따라 지급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그 제안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 제품들로 수백만의 삶을 향상하는 IT 기업가들과 작은 카페에서 청소하는 시간제 미화원 사이 넓은 격차를 남겨 둔다. 그리고 시장 가격들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사회 공헌(contribution to society)’을 측정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간호사, 판사, 심해 잠수부, 세금 사정관 혹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들의 발명가에게 가는 상대적 보상들이 무엇이어서 할까? 서로 다른 집단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헌했다고 주장하는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차이의 축소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하면, 지적인 논쟁은 불가피하게 부와 소득의 더 큰 *평등*(equality)에서 더 큰 *형평*(equity)—부와 소득에서 무슨 차이들이 여전히 수용 가능한가—으로 단축된다. 여기서 초점은 부, 소득 혹은 기타 특징들에서 뚜렷한 차이들을 끝내는 것에 두어진다.

그 접근법의 문제들. 그러나 이 실용적인 접근법은 강건하지 않다: 만약 불평등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면, 완화된 불평등도 여전히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접근법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불평등을 ‘공정한 (fair)’ 한계 내에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지 모르지만, 공정은 주관적인 개념이고,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수용 가능한지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것이다. 아주 아마도, *더 평등한* 소득이나 부는 완전히 평등화된 것들보다 더욱더 큰 논쟁을 일으킬 것인데, 사람들은 상태가 더 낮게 된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시기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필요나 공헌이 인정되지 못했다고 불평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하면, 논쟁이 그다음에는, 결과들을 평등화하거나 좁히기조차 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기회들* (opportunities)을 평등화하거나 좁힐 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옮겨간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12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부, 양육 혹은, 인종·종교·성·나이 같은, 다른 특성들과 상관없이, 일자리, 공직 혹은 다른 기회들을 얻기 위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관념이다. 일할 그들의 능력 같은, 오직 *적절한(relevant)* 특징들만이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사람들이 유리한 일자리와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지 모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물론 양육이다. 안정적이고, 애정이 깊으며, 자극적인 가족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대학에 가거나 보수가 좋은 직업을 위해 훈련할 할 더 나은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기회의 평등에 관한 많은 논의는 우리가 이 배경 차이들을 어떻게 평등화하거나 적어도 좁힐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것에는 단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유리한 직업들과 관직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에 집중하는 것은 소득과 지위에서의 불평등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 접근법은 능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의 개념을, 그것이 함축하는 모든 불평등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 같고, 평등한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인간 생활의 그저 하나의 작은 부분, 즉 양육만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를 무시하고 있다.

평등한 기회의 의미

평등한 양육의 불가능성. 명백히, 가족은 불평등의 강력한 발생기이자 보강기이다. 양육이 사람들의 미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자격 있는 어떤 직위든 획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그것이[양육이] 어떻게 평등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만든다.

특히, 교육이 인생 결과들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지만, 최고 학교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교육적 성취도 역시 양육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평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 독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획일적인 체제 안에서조차도, 어떤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더 고무적일 것이고—참으로, 그것은 교육에 얼마나 많이 지출되는지보다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다—그래서 여전히 평등의 보장이 없다. 그리고 가족 가치들은 어떤 아이들에게, 그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고용에 들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이로 올 것이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을 평등화하는 유일한 길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국가 보육원들에 집어넣고, 정말 어떤 인간 접촉도 최소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물론 터무니없고 부당한 생각인데, 하기야 기회들을 평등화하는 것의 본질적인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생각이긴 하다.

근로자들과 고용주들. 그리고 평등한 고려에 대한 입사 지원자들의 권리들은 고용주들의 선택들에 우선하는가? (1970년대로부터 현실 세계

소송 사건을 끌어내면) 누군가가 스코틀랜드인 요리사 모집 광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쩌면 그들은 스코틀랜드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이 절약하거나 정직하다고 믿거나, 스코틀랜드 음식을 선호하거나, 스코틀랜드 사투리들을 듣기를 매우 좋아하거나, 백 가지 다른 이유 중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법률은 그들이 어쩌면 덜 좋아하고 덜 신용할 모든 프랑스인 혹은 이탈리아인 지원자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그들 자신의 선호들이, 설사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야 하는가?

우려는, 그러한 법적인 평등 기회 보장들이 없으면, 고용주들이 일정 집단들(어쩌면 종교적이거나 인종적인 집단들, 혹은 이민자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어서, 그들이 영구적으로 배척되고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방치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그 예를 들면, 단지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고 일에 종사하기만 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고 정말 극복한다—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자기들에 대한 편견이 흩어지게 한다.

명백히, 만약 지원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고용주들은 그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미숙련 근로자들이,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 셈하는 능력 및 언어 유창성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지원자로서 더 자주 배제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수자 집단들은 일자리를 찾고 지원하는 데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집단들은 모두 더 가난한 경향이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므로—웁긴이 주) 기회의 평등은 그들의 가망을 향상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

무슨 자격들이 중요한가? ‘그 일을 할 능력(ability to do the job)’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과거의 형사 유죄 판결들은 지원자가 거부되는 것을 정당화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은행 업무에 지원하는 사례에서 사기 유죄 판결들 같은) 오직 관련 있는 것 같은 유죄 판결들만 그러할까?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데 범죄가 중대했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일에 대한 동기, 헌신 혹은 열의를 거의 보이지 않는 지원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그들은 여전히 평등 기회 정책 아래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판단들은 생래적으로 주관적이고 어쩌면 고용주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설사 지원자가 무능력으로 인하여 거부되고 있는지 아니면 차별 때문에 거부되고 있는지 때때로 불명확하다고 할 지라도 그렇다.

우리가 상속을 걱정해야 하는가?

서로 다른 가족은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른 출발을 주는데, 하기가 다시 정책 초점은 조작할 수 있는 것들, 소득과 부에 두어지긴 한다. 그러나 부의 상속이 중요한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메울 수 있는가?

그 요인의 크기. 부를 상속하는 것이 이점일지 모르지만, 상속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부에서 그저 그다지 크지 않은 비율만 차지한다. 그때조차도, 상속은 불평등을 많이 올리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상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가족의 부는 곧 소진한다; 그리고 가족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운영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리고 금융 자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현명하지 못하게 투자할지 모른다.

하여간, 대부분 재정적 성공은, 상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의 선택, 동기 그리고 적용에서 생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⅔는 자기들 소유의 재산을 모았지, 그것을 상속하지 않았다. 2021년에 램지 솔루션스(Ramsey Solutions)는 10,000명의 미국인 백만장자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그들 중 단지 ⅓만이 하여간 어떤 상속이든 받았고, 단지 3퍼센트만이 \$1백만 이상을 상속했다고 보고했다.

운은 불공정한가? 하여간, 왜 우리는 단지 자기들을, 재정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돕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벌해야 하는가? 그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왜 그들의 행운을 벌하는가? 대부분 삶은 운—예를 들면, 알맞은 시점에 알맞은 장소에 있는 것,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익을 가져오는 운에 맡기는 것—의 문제다. 그리고 나쁜 일들도 역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예를 들면, 그들의 일자리가 기술 변화에 희생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불공정하지 않고, 벌을 받거나 보상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한 일일 뿐이다.

복권 당첨금같이, 상속은 운의 문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복권 당첨금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므로 왜 그들의 상속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물론, 유언자들이 자기들의 상속인들에게 주는 돈은 자기들에게 그

저 운의 문제로서만 생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저축하고 투자함으로써 벌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상속은 엄청난 부자들의 광대한 토지들로부터가 아니라 보통 가족들 안에서 소액으로 생긴다. 그것은 그들의 상속인들을 약간 보호하고 국가—즉, 납세자들—에 대한 그들의[상속인들의] 의존을 줄인다.

규칙들이 지배한다. 상속에 관한 규칙들은 결과들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장자 상속 전통은 대규모 시골 토지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전통에 대해 훌륭한 변호 이유들이 있는지 모른다. 대조적으로, 잔존 자식 사이에 토지를 나누는 프랑스의 *평등*(egalité) 전통은 성장할 수 없게 작은 농장들을 만들어낸다. 만약 우리가 결과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기를 정말 원한다면, 사후(事後)에 재분배하려고 하기보다, 상속을 둘러싼 규칙들을 개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

상속 과세는 경제를 손상한다. 그것은 부 보유자들이 저축하고 투자하기보다 지출하도록 부추겨, 국가의 생산적 자본과 따라서 그것의 생산성과 성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부추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부든, 더 생산적인 자산들—보다는, 최악의 조세(상속세—유흥이 주)를 피할지 모를 자산들로 보유하게 한다.

상승하는 기회 평등. 비록 부가 가족 배경이나 좋은 학교 교육의 운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 *때문*은 아니다. 록스타 소득들은 교육이나 가족보다 타고난 재능에 더 달려 있다. 보통의 배경들 출신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록스타가—그리고 법률가, 의사, CEO 그리고 수상이—정말 된다는 사실은 기회들이 이미 아주 평등하

고 아마도 더 그렇게 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13 재분배 정책

무슨 실제 정책들이 더 큰 경제적 평등을 최상으로 촉진할지에 관해서는 그것의 이론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적은 의견 일치가 있다. 가능한 선택지들은 누진 과세에서 부유세를 거쳐 복지 증가, 최저 임금, 음(陰)의 소득세 그리고 불리한 조건에 놓인 집단들의 지위를 올리기 위한 소수 집단 우대 조치에 이른다. 그러나 덜 언급되는, 다른 종류의 전략, 즉 경제 성장의 촉진도 있다.

누진 과세

누진 과세(progressive taxation)는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자기들 소득의 더 큰 백분율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통상의 모순—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불평등한 대우—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것을 *한계 효용 체감(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을 근거로 정당화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더 적은 가치와 향유를 얻는 경향이 있다. 더운 날에 한 병의 물을 손 닿는 곳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일지 모른다; 두 번째는, 환영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50병을 가지는 데는 편익이 거의 없다.

그 주장의 내용은,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저소득자에게는, 1파운드나 달러나 유로는 지극히 중요하다; 중간 소득자에게는, 중요하다; 그러나 고소득자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고소득자들 보수의 더 높은 비율을 빼앗는 것이 공정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상실을 예민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분의 수입은 우리가 저소득자들을 지원하고 따라서 소득들을 더 강건하게 평등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누리는 총효용은 올려질 것인데, 왜냐하면 화폐는 그것을 더 작게 평가하는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더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문제. 이것은 물론 모두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이든 1파운드나 달러나 유로로부터 끌어내는 유용성이나 향유는 그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쾌락이나 고통, 행복이나 슬픔, 불안이나 평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다른 감정들의 어느 것과도 같이) 우리는 확실히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것을 평등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사회가 누리는 총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개인들은 다양하고, 모두가 오직 소득이 사는 것에 대해서만 소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소득을 성취, 수용(受容), 성공 그리고 지위의 표시로 여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속인들을 부양하기를 원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저축하고 기업을 시작하기

를 열망할지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선 사업에 주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고소득자들은 소득의 상실을 저소득자들만큼 예리하게 느낄지 모른다.

다수파 정책에 대한 한계. 설사 우리가 누진세들이 사회의 총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다수파가 그러한 재분배를 (고소득) 소수파에 부과할 권리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만약 어떤 사람들이 부를 가지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 더 적어진다고 믿으면서 소득을 고정된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다: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혁신, 투자 그리고 생산성을 통해 *창출된다(created)*. 그것은 자유, 선진 국가들의 주민들이 그들이 1800년에 그랬던 것보다 100배나 더 잘 사는 이유이다. 고소득자 대부분은 그들이 수천 혹은 수백만의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산출하고 그들의 삶을 증진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이미 높게 과세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과들과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분리할 수 없다. 누진세들은 불가피하게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억제하고, 그러므로 진보와 경제 성장을 무디게 한다. 그것은 사회가 더 평등하게 되지만 더 가난하게 될 가망을 우리에게 남긴다.

부유세

또 하나의 가능한 평등화 전략은 부유한 사람들의 부에 대해 연례 조세

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옥스팜은 부에 대해 0.5퍼센트 조세를 제안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1퍼센트만큼 적게 벌지 모르는, 낮은 이자율의 시기에, 그것은 투자 수익들에 대한 50퍼센트 조세에 해당한다. 한 차례 인플레이션은 그 수익들을 줄이거나(실효 세율을 더욱더 높이 올린다) 그것들을 음으로 내몰기조차 한다(이 경우 우리는 부 감소에 대해 사람들에게 과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세들은 명백히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그저 지출할 뿐이어서,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경제에서 빼앗을지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해외로나 비과세지만 덜 생산적인 투자들로 옮김으로써 조세를 피하려고 할지 모른다—다시 경제 성장을 서서히 해친다. 혹은 부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은 그저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보유하는 자산들을 저평가할 뿐일지 모른다. 토마 피케티가 한 80퍼센트나 그 이상의 부유세 제안은 더욱더 불만하게 비생산적인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가변적인 자산 가치. 부 측정 문제는 또한 다른 면에서도 심각하다. 한 사람의 부는 그가 소유하는 자산들의 시장 가격에서 그의 부채를 뺀 것이다. 그러나 시장 가격들은—종종 상당히—오르고 내린다. 억만장자의 부는 어떤 고도로 성공적인 제품을 개발한 회사에서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때든, 기술, 유행 혹은 자원 이용 가능성에서 변화들은 그 기업을 몰락시킬 수 있고 그것의 소유자를 파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해야 하는 세액은 어떤 날에 조세 사정(査定)이 이루어졌는지에 달

려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만약 그것이 주식 시장 붕괴 전 날이라면, 우리는 더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세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것 같다.

수입들에 대한 한계. 사람들은 또한 부유세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부스와 사우스우드(Booth and Southwood) (2017)는 만약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전(全)부를 빼앗아서 그것을 세계 인구의 평생 내내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1년에 단지 \$1.35의 보수 인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유인을 파괴할 것이다.

옥스팜의 조세는 약 \$2천억을 모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세계의 정부들이 쓰고, 그것의 많은 부분을 복지, 연금 그리고 다른 평등화 급부금들에 쓰는, \$22조의 조그마한 부분이다.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기회들을 확대하는 데 돌려진 \$2천억은 많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들은 집중할 자기들 자신의 국내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므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질 정도로 작다.

해외의 부. 평등 설화의 흔한 주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를 해외에서 저(低)과세 관할 지역들(‘조세 피난지(tax havens)’로 모욕당한다)에 두고, 그리하여 학교, 복지 그리고 다른 국가 서비스들에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는 ‘두어지

는(parked)' 것만 아니다—그것은, 그것을 통합하고, 관리하며,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용도들로 돌리는, 헌신적인 금융 중심지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 자본은 그것이 과세로 정부들에게 가는 경우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투자되는데, 정부들은 그것의 대부분을 경상 지출에 소비하고, 나라의 생산적인 미래에 투자할 것을 더 적게 남기며, 그리하여 모든 소득 수준에서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이나 자신들—을 저과세 관할 지역들로 옮길 가능성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유세가 전 세계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저과세 관할 지역은 작은, 때로는 섬으로 된, 국가이고, 자본 관리 외에 자기들을 부양할 다른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더 큰 나라들조차도 만약 그들이 더 낮은 과세나 더 너그러운 시행조차도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국제 협정을 방해할지 모른다. 세금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피할 방법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부유세는, 특히 피케티가 옹호한 규모에서는, 그저 실행 불가능할 뿐이고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최저 임금

고용주들이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급 아래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가장 가난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그런 근로자들의 동기를 끌어 올리고,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며, 사회 급부금들에서 하차해서 일로 들어가

는 유인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최저 임금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취직하지 못하고 있고 (비판자들이 말하기를) 최저 임금 정책으로 높은 가격이 매겨져 일을 못 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그들을 고용하는 모든 비용(임금, 세금, 연금, 관리 시간, 등등)보다 더 많은 가치를 기업에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은 더 낮은 가치 일자리들이 단계적으로 제거되거나 사람들 대신 로봇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 미숙련 근로자들 혹은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같이, 우리가 가장 돕기를 원하나 기업에 가치가 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참으로, 젊은이들을 위해 흔히 더 낮은 최저 임금율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격이 매겨져 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의 시인인 것 같다. 비록 그들이 사실상 그렇게 된다는[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을지라도 그렇다: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들(starter jobs)’(영화관 안내인, 슈퍼마켓 봉지 포장 담당 직원, 주유소 주유 직원, 등등)의 상실은 약간의 젊은이가 전혀 일자리 사다리에 오를 수 없게 그리고 사회 급부금에 의존하게 방치할지 모른다.

최저 임금 지지자들은 이런 일자리 상실들이, 기술 변화 같은, 다른 이유들로 발생한다고, 그리고 최저 임금이 실제로 고용에 정말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은 자기의 의도된 과녁을 실제로 맞히는가? 많은 최저 임금 나라에서는, 최저 임금 소득자의 다수는 가난한 가구들

출신조차도 아니다; 그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들, 계속 활동적이기를 원하는 은퇴한 사람들, 혹은 일터의 동료 관계를 즐기는 고소득자들 배우자들이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돕기를 원하면, 우리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나 음의 소득세 제도를 가지고 훨씬 더 잘할 것인데, 이것들은 고용주들이 일자리가 정당화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허용할 것이지만, 진정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보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메꿀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

그저 차별을 불법화하는 것만을 넘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지 모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리한 직위들에서 저(低)대변되는 집단들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자리나, 기업, 대학교 혹은 정부 부(部)에서 일자리의 일정 비율이 특별한 성, 인종 혹은 종교의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할당 제도들을 포함할지 모른다.

이 정책의 문제는 그것이, 개인들이 아니라, 집단들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특정 집단의 가망을 증대하는 것은 그것의 가난한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것의 부유한 구성원들도 도울지 모르는데, 이것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그다음 어느 집단들이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들에서인지의 질문이 있다. 객관적인 해답이 없는 것 같다.

일관성 없는 대우. 아무리 자격이 있건, 기회들을 어떤 집단들 쪽으로 기울이는 것은 사회에 비용을 부과한다. 만약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할당을 선택된 집단들로부터 채우지 않을 수 없다면, 설사 그들이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기준들이 떨어질지 모른다. 또한, 그런 집단들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똑같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회들이 거부된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적인 선택이어야 할 것에 부적합한 가치들을 부담 지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의 공학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사회적 정의의 이름으로 임명된 공학 교수들이 아니라, 숙련된 공학 교수들이 필요하다.

선발 문제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자리 지원자들이 반드시 모집단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육군 장교가 되기를 지원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고, 사회적 돌봄(social care)에서 일하기로 선택하는 남자들이 거의 없다. 고용주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채우는 데 명시된 집단들의 지망자가 그저 불충분하게 있을 뿐일지 모르는 문제에 직면—하여 기준들이 더욱더 떨어지게 자극—한다. 그리고 이 집단들로부터 자격을 잘 갖춘 지원자들이 임명될 때,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할당을 채우기 위해 선택되었는지에 관한 회의에 그들은 직면할지 모른다.

경제 성장

세계은행 자료는 평등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가 재분배가 아니라, 번영

하는 경제라고 암시한다. 세계 평균의 대략 세 배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부유한 산업 국가들은 표준적인 지니 측정치에서 가장 평등하다. 그들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대체로 더 가난한 나라들보다 더 평등하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평균의 약 1/3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 (라틴아메리카는, 비록 세계 평균의 단지 약 20퍼센트 미만일 뿐인 1인당 GDP일지라도, 어떤 곳보다 훨씬 덜 평등하지만, 그것의 약간은 유럽 주민과 현지 원주민 사이 역사적 불평등 같은, 지역적 특이점들 때문일지 모른다.)

번영하는 경제는 대부분 사람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기회들을 더 많이 확대한다. 부유한 경제에서 부자들은 더 큰 슈퍼요트(superyachts)를 살 여유가 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나은 주택, 운송, 통신, 식품 그리고 의복을 살 여유가 되고, 덜 성가신 일과 더 많은 여가를 누린다.

동태적인 경제에서 고소득을 벌 가망이 사람들에게 유인을 주어 더 많이 투자하고, 혁신하며, 생산하도록 하는 한, 전 공동체는 더 값싸고, 더 나으며, 더 풍부한 제품들에의 접근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만약 재분배가 경제 활동을 부진하게 한다면, —그들이 지금 그런 것보다 결국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게 될지 모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공동체는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다.

우리는 소득 평등화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경제 성장이 평등을 얼마나 크게 촉진할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확실히, 자유 사회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일 것 같다. 그러나 자유

사회들은 또한 번영하고 민주적인 사회들인 경향이 있기도 하며, 이것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복지 정책을 제공할 수 있고—정말 제공하—는데, 종종 그들을 가난한 사회들의 평균 소득 한참 위로 올린다. 예를 들면, 미국 인구의 *최하위 5분위*(bottom fifth)의 평균 소득은, 그들이 정부 이전 급부금으로부터 얻는 68퍼센트 향상 이전에도, [미국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연간 \$22,500으로 추산하는데, (사회주의) 알제리에서 *모든 사람*의 평균 소득의 여섯 배 더 높고 (공산주의) 쿠바에서 평균의 서른다섯 배 이상이다.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 (2015)가 언급하듯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아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 소득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의 자유화와 무역 덕분에, 세계는 더 부유해지고 있고, 그래서 최악의 빈곤은 더 드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 평등에 관한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닌가? 도덕의 관점에서, 프랑크푸르트 (2015)는 말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the same)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충분히*(enough)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14 민주주의와 평등

공공 정책들은 좋은 의도들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것들은 좋은 결과들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분배 정책들은 종종 정반대의 일을 한다. 대부분 지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국가 서비스들은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지 않으며, 재분배 프로그램이 더 클수록 삶은 더 정치화된다.

연합 정치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이 되도록 작동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자들보다 수가 더 많으므로, 그들은, 만약 그들이 그것[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선택하면, 재분배를 산출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추정일 뿐이다: 전혀 다른 이익 연합들이, 자기들이 사건들을 좌우하는 데 필요한, 선거인 다수를 모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들은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그들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세금 이전으로 충분히 지급하기로 동의할지 모른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주 많은 공공 지출을 중산 계급 수혜자들에게로 돌리는, 오늘날의 체제 아래에 있는 것보다 자신

들을 더 낮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연합은 덜 자선적이기조차 할지 모른다. 사실상, 선거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중간 소득 및 약간 더 잘사는 집단들이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그들이 더 많이 있을 뿐이다. 소득들의 분포는 종 모양이고, 꼭대기[오른쪽 끝]와 밑바닥[왼쪽 끝]에는 소득자들이 적고, 중간에는 많다. 인구 중 보수가 가장 적은 반(半) 사이에서조차도 이 집단[중간 집단]이 지배할 것이다.

중간 계급의 정치 지배. 그리고 중간 소득 및 약간 잘사는 집단들은 이 선거 과정을 정말 지배한다. 그들은 수가 더 많고, 세금 대부분을 내며, 예상 밖이 아니게도 그들은 다시 그것의 대부분을 (나라에 따라) 연금, 무료 교육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주택·보건 의료 및 운송 같은 보편적 국가 급부금들로 되찾는데, 모든 것이 그들의 필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급부금들과 서비스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서 대중에게 선전될지 모르지만, 중산층도 역시 그것들로부터 편익을 얻는다(그리고 종종 가장 많이 편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더 잘사는 가족들의 자녀들은 가난한 가족들의 자녀들보다 국립 대학교들에 더 다닐 것 같다). 국가 급부금들과 서비스들을 확대하기로 가결하는 것은 중산층을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그러나 자신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비용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만약 정부 예산들이 그저 그들 사이에 갈게 나누어 지기만 하면 훨씬 더 상태가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정부 지출이

현재 농부들, 학생들, 노인들, 예술가들 그리고 지식인들 같은 더 잘사는 집단들에게 간다. 도중에, 예산의 상당한 비율이 이 프로그램들을 촉진하는 이익 집단들, 그것들 안에서 일하는 직원과 행정가들, 그리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간다. 그것은 모두 중산층 복지의 자기 영속화를 촉진하는데, 왜냐하면 이 집단들(그들 대부분이 잘산다)이 그 체제를 보존하는 데 공유된 일관성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덜 응집력 있는 이익 집단이고 그러므로 정책에 대해 영향력이 훨씬 덜 있다.

빈곤에 대한 정치. 이 사실에서, 자유 민주 국가들에서 복지 국가의 발생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지속이 유래한다. 결과들은 빈곤을 제거하거나 평등을 촉진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전략에보다도 당시의 정치적 압력들과 연합들에 더 달려 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가정하면서, 너무나 흔히 무시하는 어떤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대개 이익 집단들에 의해 움직인다. 불평등을 줄이기는커녕, 정치권력의 현실 모습은—특히 중산층의 정치적 지배는—정치 체제가 불평등을 *일으킨다(creates)*는 점을 의미한다.

재분배에 대한 한계

실제로, 고소득자들을 과세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분배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다. 억만장자 부는 대부분 정부를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동안 견디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여간 획득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억만장자 부 대부분은 그들의 기업들이나 그들의 기업 주식들에 있다; 그것은 쉽게 정부들에 의해 현금화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 시도한다면 그기업들의 가치는 급락할 것이다.

또한, 높은 누진세율은 고소득자들을 부추겨 자기들의 돈을 몰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싼 자문가들을 고용하게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를 높은 세율에 잃기보다는 그것을, 그리고 참으로 자신들을, 더 저과세 관할 지역들로 옮긴다. 사람들이 더 쉽게 이주하거나 자기들의 돈을 옮길 수 있을수록, 그들로부터 역지로 얻어낼 수 있는 세금은 더 적어진다. —최고 소득세율이 83퍼센트였고, 투자 소득에 15퍼센트 부가세를 물었던 1970년대 영국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만약 더 부유한 사람들이 이사회 나간다면, 그것은 사정을 더 평등하게 *보이게*(look) 할지 모르지만, 인적, 물적 그리고 금융 자본의 상실은 그 나라에 재난이다.

이 점은 다시 정치적 기만과 불평등한 대우를 조장한다: 정치인들이 고소득자들에 대해 인상적으로 높은 세율을 정할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다양한 공제액과 면제로 견딜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그다음에는, 결과로 나타나는 불공정에 대한 대중 분개를 일으킨다. 허점이 거의 혹은 전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더 낮은 세율(‘일률 과세(flat tax) 개념’)이 절세, 탈세 그리고 불평이 더 적게 더 많은 세입을 모을지 모른다.

강제된 재분배는 얼마나 공정한가? 대부분 사람이 자기들의 소득을 공정하게 벌었고 그것에 관해 세금을 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지 통찰력 있는 결정을 했을 때, 하여간 ‘부자들을 쥐어짜는(squeeze the

rich)’ 것이 정말로 얼마나 공정한가?

확실히, 부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연고주의(cronyism)를 통해 돈을 버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는 경쟁을 억누르는 데 정치 체제를 사용하거나, 정치적 친구들에게 정부 계약들을 자기들 쪽으로 돌리게 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연고주의의 기회들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 확대이다. 만약 얻을 수 있는 독점, 규제 금융, 보조금, 대출금 그리고 계약이 있다면, 약간의 사람이 그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연고주의는 정치 체제에 의해 일어나는(created) 불평등의 또 하나의 예이다.

금융 산업. 금융 산업은 종종 부자들이 터무니없이 더 부유하게 되는 기회로서 묘사되고, 운동가들은 최근 몇 년간 금융 부문의 확대를 불평등 상승에 관련지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은 세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고도로 생산적인 산업이다. 모든 기업은 자기들의 운영과 거래, 투자를 위한 대출, 보험, 환전, 위험 헤징, 기타 등등을 위해 금융이 필요하다. 더 많은 국제 무역이 많은 회사의 규모를 확대했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장소들과 시장들을 다각화했으므로, 그러한 금융 서비스들은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에 직면하여 솜씨, 판단 그리고 분별을 요구한다.

정부들은 경쟁을 활기 넘치게 유지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촉진하고 있어야 한다—하기야 실제로는, 세금 우대들 그리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정책들과 규제 금융들은 그저 현직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지지

하고 그 경쟁을 줄이는 데만 이바지한다.

부유한 사람들의 정치적 실패. ‘부자들(the rich)’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왜곡하는 데 자기들의 금융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흔한 관념이다. 그러나 많은 다른 이익 집단과 이익 집단 연합이 그것에 훨씬 더 성공적이다. ‘부자들’ – 적어도, 정치적 연고주의를 통해서보다 성공적인 기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의 이익들은 *더 적은(less)* 정부와 *더 낮은(lower)* 세금일 것이지만, 역사적 기록은 이것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나타내지 않는다. 평등 설화는 ‘부자들’이, ‘더 작은 국가(smaller state)’의 관념들을 지원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같은 정치인들을 고무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얻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더 작은 국가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최고 소득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몫을 내면서 세금이 올랐다.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 자기들의 소득을 자본 이득(capital gains)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불평하는데, 자본 이득은 흔히 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거의 없고, 자본 이득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투자가 이미 세금이 매겨진 소득에서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자본 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율보다 훨씬 더 높다.

정치적 일관성 결여. ‘부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비슷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경제 계급으로 묘사한다. 사실상, 그들은 서로 다른 기업 혹은 직업으로부터나, 스포츠, 문화 혹은 예술에서 그들의 특별한 재능들로부터 생긴 다양한 소득 및 부 원천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가치, 동기, 헌신, 의무 그리고 정치적 소속조차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중산층들보다 훨씬 덜한 일관성 있는 정치적 힘인데, 이들은[중산층들은] 정부 강령들을 자기들 자신에 이익이 되게 형성할 수 있었다. 애석하게도, 정치가 불평등에 그렇게 많이 책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줄이는 데 정치에 의지할 수 없다.

평등하게 하는 사람을 누가 평등하게 할 것인가?

더 큰 평등의 옹호자들은 그것을 법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믿는다: 자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평등을 높일지 모르는 *자발적인(voluntary)* 조치들을 확대하는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재능과 정력은 대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정치적 권위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된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은 심란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권력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업은 충분히 온당한 것 같을지 모른다—혼합 경제 체제의 어떠한 혁명적 대체보다도, 임금 규제와 부유세 같은 소수 여분의 입법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런 조치들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데 권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무슨 수준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데 재량이 요구된다. 누군가(somebody)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시행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의 소득 면에서 평등하게 만드는 운동에서, 우리는 엘리트 소수를 그들의 정치권력 면에서 불평등하게(unequal) 만들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걱정이다. 정치 엘리트들은—법률들을 만들고 만약 사람들이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을 벌금을 물리고 투옥하는 권력같이—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권력들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핵심 문제는 우리의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억제하는지이다. 정치 과정은 일을 결정하는 악명 높게 번잡한 과정이고 불합리한 방식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큼 단순한 과업에서도 당국이—부지불식간에조차도—권력을 남용하기가 특히 쉽다.

15 평등에 대한 장벽

만약 우리가 불평등을 줄이는 데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먼저 평등을 보존하는 제도들과 정부들 자신이 때때로 창설하는 그것에 대한 장벽들에 집중해야 한다.

법적 및 시민적 평등

공정한 사회를 창설하는 첫걸음은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이다. 그것은 모든 범죄자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똑같은 법률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법률들이 불공정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똑같은 불편부당한 법률들이—평등한 접근, 사법적(司法的) 불편부당 그리고 적법 절차를 가지고—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예외가 있을지 모른다—예를 들면, 법은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데 강압을 사용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들은 상당한, 적절한, 합리적인 그리고 이치에 맞는 정당화가 필요하다.

똑같은 것들이 시민적 혹은 정치적 평등에도 적용된다. 시민적 평등

(civil equality)은 투표하고 관직에 출마할 평등한 권리를 함축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당한 정치 체제는 또한 자유 언론과 토론에 참여할 권리, 덧붙여서, 매체의 정치적 지배, 야당 후보들의 부정(不正)한 체포, 정당들의 금지, 혹은 후보들의 협박 같은, 책략들의 역제를 가정한다. 국가 장치와 국가 권력이 더 클수록, 이 역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

평등과 이동성

더 큰 평등의 옹호자들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을 불평등의 징후라고 보고 그것을 뒤집을 정부 행동을 요구한다.

통계적 문제들. 이동성(mobility)은 가치(merit)에 따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일 능력이다—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막는 부적절한 차별적 장벽 없이, 얼마나 쉽게 더 불리한 초기 단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로 오를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여겨진다. 그러나 이동성 통계는 방해 없이 오를 능력(ability)을 측정하지 않고,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해가 있건 없건, 정말(do) 오르는가만 측정한다. 이동성 통계는 우리가 기회의 평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대리 변수일지 모르지만, 이동성과 기회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 통계는 그들의 야망, 근로 윤리 그리고 결단을 가지기 때문에 오르는 사람들을 오를 수 있을(could) 것이지만 그 모든 필요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한 덩어리로 다룬다. 그 자체로 그것은 이동성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동성의 널리 퍼짐을 저평가한다.

이동성과 불평등. 이것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불평등이 이동성을 약화한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불평등은 19세기와 20세기 초 매우 높았지만, 이것들은 거대한 이동성의 시대였는데,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와 헨리 포드(Henry Ford)가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들로 예증 이 된다. 오히려, 주된 요인은 더 개방적인 경쟁과 무역이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들에서는, 야심에 찬 사람들이 기회들을 손에 넣음에 따라, 이동성이 높다.

또한 만약 고용주들이 상승하는 경제 조류를 붙잡아야 한다면, 그들이 전통적인 이동성 장벽을 유지할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도, 이동성은 상승한다. 예를 들면, 인도의 1990년대 개혁들 후에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서 IT 산업의 급속한 확대로 가장 낮은 사회 카스트들의 구성원들이 보수가 좋은 일자리들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호황 산업은 그들의 두뇌와 능력을 그들의 사회 계급보다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통계는, 불평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이 1970년대 이래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암시한다. 미국은 불평등하다고 비판받는다—그렇지만 그것은 고도로 이동성이 있다. 만약 불평등한 나라가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의 성공에도 개방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이동성에 대한 장벽

비록 많은 사람이 정부들을 이동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힘으로 보지만, 현실은 국가 서비스, 세금, 규제 그리고 통제가 너무나 자주 그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최저 임금 법률들은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starter job)를 얻고 소득 사다리(income ladder)를 올라가는 데 장벽이다. 직업 면허는 비싼 훈련에 장기간을 참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들을 차단한다. 종종 공공 안전의 이름으로 조장되는 규제들은 기성 기업들이 성가신 신진 기업들을 안에 들이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계획 법률은 주택 비용을 올려, 젊은이들을 억제한다. 역진세, 소비세 그리고 사용자 요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하게 닥친다.

혁신자들도 역시 정부 개입들로 억제된다. 반독점 법률은 가장 성공적인 회사들의 확대를 억제하고 생산적 자본의 축적을 정지시킨다. 대학 교육에서 국가 독점들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종류의 학습과 연구를 구축(驅逐)한다. 관료제는 작고 혁신적인 회사들의 생산적인 노력을 서식 채우기(form-filling)와 네모 칸에 꺾자 표시하기(box-ticking)로 돌림으로써 진보를 약화한다.

한편, 재분배적 조세들과 급부금들은 어떤 개인들로부터 생산적인 부를 빼앗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인 빈곤의 함정에 빠뜨린다. 대부분 빈곤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사회 급부금들의 설계는 종종 그들이 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하기를 꾀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유리 천장과 기타 차별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정부 행동 자체에 의해 세워진 장벽들도 기억해야 한다.

16 불평등의 역할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는가?

일반 대중이 정말로 결과의 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달성하기를 원하는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론 조사들에서 그들은 상례적으로 보건 의료, 번영, 재정상의 안정, 평화 그리고 안전 같은 다른 것들을 평등 위에 등급 짓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내기로 기꺼이 자원하지도 않는다.

평등하고, 균일하며, 비경쟁적인 사회라는 대학교수들의 이상을 대중이 공유한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오르기를 열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 같다. 막대한 도박 수요가 어찌면 그것을 증언할 것이다—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국가 복권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들 크리스티나 스타먼스(Christina Starman), 마크 셰스킨(Mark Sheskin) 그리고 폴 블룸(Paul Bloom) (2017)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소득 분포를 선호하는데, —돈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운 좋은 복권 당첨자들에게조차도 가서—그것이 공정하다고 그들이 지각하는 한 그렇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지 혹은 불평등한지 확신하지조차 못한다. 실험자들 올리버 하우스저(Oliver Hauser)와 마이클 노턴

(Michael Norton) (2017)이 피실험자들에게—예를 들면, 꼭대기에 소수의 부유한 사람과 밑바닥에 다수, 많은 부유한 사람과 소수의 가난한 사람, 혹은 다수의 중산층과 꼭대기와 밑바닥에 거의 없는—일련의 가능한 표현으로부터 자기들 자신의 사회를 골라잡도록 요청했을 때, 대체로 그들은 골라잡을 수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오해하였다. (대체로,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에서 측정된 불평등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등 기질의 대학교수들이 그들의 무지를 개탄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척도들이 광범위한 평등화 요인을 무시하거나 저평가하므로, 아마도 대중은 진정한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에서 그들이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래한다.)

평등 사회와 불평등 사회

평등의 옹호자들은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이로워 증명 책임이 그것을 의문시하는 아무에게라도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지 않다. 모든 현실 세계 사회들은, 사람들이 다르게 대우받는 부, 소득,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불평등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들조차도 여전히 상속, 장학금, 훈장, 상 그리고 재능 있는 예술가에 대한 [러시아식] 시골 별장조차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일은, 설사 그것이 존재했다고(혹은 최초의 혁명적 야망들을 넘어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증명 책임은 그런 혁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더 명백하게 걸려 있다.

불평등의 기능성. 사회들이 그렇게 많은 방식으로 불평등한 경향이 있고 여전히 불평등한—그리고 참으로, 그것들의 최초의 평등화 실험들 직후에 불평등으로 복귀하는—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평등과 구별들은 사회에서 근본적인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불평등한 사회들은 작동한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고, 그것들은 아직도 존재하며,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소련이나, 마오의 중국이나, 폴포트의 캄푸치아(Kampuchea; 1975-88년 캄보디아의 구칭)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단명하는 평등화 실험들보다 더 설득력 있는 기록이다.

질문은 왜 불평등 사회들이 작동하는가이다. 불평등이 사람들에게 훈련하고, 기술을 얻으며, 자기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기업가적 보상의 가망이 위험 감수와 혁신을 장려—하고 이 모든 것이 그다음 진보와 번영을 증대—할지 모른다. 혹은 어쩌면 더 심오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생각했듯이, 수 세기 동안 쌓아 올려져 왔고 지속해 온 규칙들, 관습들 그리고 계층제들에는 ‘지혜(wisdom)’가 있을 것이다.

부와 지위

부 자체는, 생산적인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으로서뿐만 아니라, 유용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F.A. 하이에크(F.A. Hayek) (1976)는 예술, 교육 혹은 연구의 후원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촉진에서와 같이 물질적 이득의 가망이 없을 때조차도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대중을 부당한 법률들로 위협하는 압제적인 정부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원하기조차 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또한 제품 선구자로서 사회적 역할도 하고 있다. 보통, 혁신적인 제품이 처음 나타날 때, 오직 더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소유할 여유가 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그러한 제품들을 사기조차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왜냐하면 이 제품 선구자들이 그 제품에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빨리 발견하고, 그들이 지급하는 높은 가격 덕분에 제조업자가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더 넓은 시장에 대해 더 싸게 대량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날의 수백만 사람이 스마트폰, 와이드스크린 텔레비전, 냉장고 혹은 항공 여행을 할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몇 년 전에 소수의 부유한 사람이 이 제품들의 효과를 시험해 보고서 그것들을 가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층제들의 역할. 사회적 지위도 역시 소중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족 자체를 가지고 시작하는 계층제들은 불평등을 함축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사회적 유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선임권, 훈장 혹은 높이 평가되는 직업의 회원 자격은 우리가 누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수십억 사람이 서로 다른 청구를 하면서 와글거리는 세계에서, 이 구별들은 우리의 한정된 주의력과 분석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파이를 나누기(dividing up the pie)’의 은유는 자연적으로 평등한 몫들이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오도하는 은유에서조차도, 다른 배분들이 완전히 합리적일지 모른다. 예를 들면, 누가 파이를 가장 원하는가, 혹은 누가 가장 열량이 필요한가? 평등 몫 가정은 사회 및 경제생활이 의도적인 집합적 사업이라고 추정하는데, 비록 그것이 실제로는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살고 상호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서로 다른 필요와 욕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치, 필요 혹은 욕망이 왜 평등보다 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파이의 증대

다시, ‘평등한 파이(equal pie)’ 은유는 부 창출 과정에 관해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점—그것이 *동태적(dynamic)*이라는 점—을 무시한다. 우리 각각은 우리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기를 목표로 삼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기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오직 범죄자들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개방적, 경쟁적인 경제에서는 당신 자신이 부를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부도 역시 증대하—는 것이다. 설사 서로 다른 사람이 증가하는 부의 ‘확대하는 파이(expanding pie)’의 서로 다른 양을 결국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결국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정말 가지는 사람

들은 복지 제공, 공공 서비스 그리고 자선을 통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여유가 있다.

빈곤을 끝내는 생산성. 평등화의 옹호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19세기와 20세기 초, 호황 경제와 소득의 시대에 특별히 잘 돼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그때는 노동조합들을 특별 대우하는 법률들이 없었고, 최저 임금도 없었으며, 과세와 공공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평등화에 중요하다고 그들이 암시하는 많은 다른 것이 더 적었다. 오히려, 소득 상승은 생산성을 올리는 발명들로 인해 발생해서, 세계에 싼 의복, 제품, 통신, 운송, 전기, 위생, 기타 등등을 가져왔다. 급상승하는 생산성은 점진적인 근로 시간 단축과 여가 증가를 허용하였고, 더 부유한 사회는 교육, 주택, 복지 그리고 더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다른 편익들에서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할 수 있었다. 모든 경제 계급이 이익을 얻었고, 1910년대까지는 그들이 그저 50년만 전에 잘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되었다.

수준의 향상. 세계 대전들과 기타 중단들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생활 수준 상승은 계속되었다. 평균 수명, 교육,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안전, 영양, 가처분 소득 그리고 여가 시간은 모두 향상했고, 유아 사망률, 치명적인 사고, 기아, 기타 등등은 하락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은 생산성 향상이다—이것은 인간 능력, 혁신, 동기, 숙련, 인적 및 물적 자본, 그리고 노고에 기초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자유주의 가치들과 제도들, 사상과 행동의 자유, 재산권들 그리고 자유로운 교환

으로 보강된다.

이 모든 것은 불평등의 세계에서 일어났지,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면에서 비슷한 북한과 남한, 혹은 구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놀랍도록 보여주듯이, 불평등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업심과 진보의 불빛을 끈다. 베트남 같은 구사회주의 및 소위 평등 국가들에서, 신흥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지만, 가난한 근로자들조차도 지금 텔레비전과 모터 달린 자전거를 사고 있고, 자기들의 번영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 불평등은 진보의 동인(動因)이거나, 그것의 결과이거나, 그 둘의 어떤 결합일지 모른다. 그러나 불평등들과 다양성이 엄청난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억누르기로 선택하기 전에 그 잠재적인 결과들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7 결론

그렇다면 평등은 그것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성가신 개념이다. 그것이 아주 많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알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서로 다른 위험을 감수하며, 서로 다른 정도의 운을 가지고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경제적 성공의 요인이다. 이것들과 그 밖에 많은 것은 우리가 그것에 관해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심지어 해야 하는지 아닌지조차도, 매우 불명확하게 만든다.

결함 있는 측정. 자료의 개략적임을 고려하고, 평등화하는 조세, 사회 급부금 그리고 현물 국가 급부금이 무시된다는—그리고 수치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생애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서 비교한다는—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불평등을 잘 측정조차 할 수 없다. 일단 이런 요인들이 포함되면, 불평등의 우세는 극적으로 떨어진다. 매우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

결함 있는 변호 이유들. 더 큰 평등을 원하는 흔한 변호 이유들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호소는 빈곤 구제를 정당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평등과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눈을 가린 선택 (blind choice)에 직면해서 우리가 모두 평등한 사회에 살기를 원할 것이라는 소위 합리적인 논거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위험과 자기 향상 가망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숙고할 때 타당한 것 같지 않다. 부자들이 그저 부유해질 뿐이라는 생각은, 운의 성쇠가 오르락내리락하므로, 사실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평등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상관관계라고 주장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약하고, 당신이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고도로 민감하다.

결함 있는 정책들. 평등화 정책들은 간단하지도 않다. 동일 임금은, 서로 다른 근로 시간과 서로 다른 가족 규모가 여전히 불공정 혐의들을 낳고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부유하게 방치할 것이라는 점을 당신이 숙고할 때까지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자리들이 다른 것들보다 그저 더 즐거울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서로 다른 사람이 지닌 광범위하게 서로 다른 능력, 태도, 행동 그리고 가치에 직면하여 평등한 결과들을 낳을 수 없음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기회들을 평등하게 하자는 생각에 의지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족은 불가피하게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인생 출발을 제공하는데, 하기가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많이 그것에, 혹은 노고와 동기에, 혹은 운에 기인하는지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다.

모순들. 재분배는 모순적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평등이라고 믿는 것

-비록 그 판단이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라고 할지라도-을 산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현실로 강제하는 데 필요한 권력과 재량을 어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든 위탁하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 참으로, 정부는 종종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자원들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중산층들로 돌린다.

집합주의 사고방식. 평등 의제는 본질적으로 집합주의적이어서, 개인들을 이 의심스러운 사회적 결과에 복종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는 불평등하고 그것들을 평등하게 하려는 실제적 시도들은 단명의 실패였다. 우리는 부, 지위 혹은 계층제의 불평등들, 그리고 단순한 인간 다양성이, 혁신, 투자, 생산성 그리고 기업심을 유인화하는 것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을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가-범죄자들과 정부들에 의한 것이 아니면-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사이에서 매일의 경제적 거래들에서 **창출되는(created)** 어떤 것이라는 점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더 나은 초점. 우리는, 평등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실패하는 국립 학교들, 경제적 부실 관리 그리고 정치권력 같은, 현실 사회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불평등을 없애으로써 사회 문제들을 끝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법을 폐지함으로써 범죄를 끝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평등이 우리의 사회 문제들을 바로잡을 것을 희망하기보다는, 직접 그것들을 역

점을 두어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패하는 학교들을 고치는 것이 어떤 양의 사후 재분배보다도 이동성과 평등을 증대하는 데 더 나은 것이다.

평등과 ‘파이 몫들(shares of pie)’에 집중하는 것은 자유 경제의 활력을 무시한다. 생산성 상승과 경제 성장은 모두에 대해 막대한 생활 수준 향상을 낳았다. 오늘날 선진국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제의 귀족들이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상 편의품을 가지고, 더 잘 산다. 1836년에,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 네이션 메이어 로스차일드(Nathan Mayer Rothchild)는 치아 농양으로 사망했다: 오늘날 우리는 치아 농양들을 항생제로 치료한다; 우리는 항생제를 동물들에게 주기조차 한다.

도덕적 명령. 만약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두 배로 부유하게 만들—그러나 그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세 배로 부유하게 만들—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누르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최선진 경제들이 더 가난한 경제들보다 더 평등하고, 더 많은 면에서 더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평등에 집중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점을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버젓한 생활 수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 문헌

- Booth, P. and Southwood, B. (2017) Poor thinking from Oxfam. *Economic Affairs* 9: 30 - 32.
- Bowman, S. (2016) Seven reasons not to care about executive pay. *Medium*, 5 January 2016 (<https://tinyurl.com/4bxje7x>).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1)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8. August.
- Frankfurt, H. G. (2015) *On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lbraith, J. K. (1958) *The Affluent Society*. Boston MA: Houghton Mifflin.
- Hasell, J. and Roser, M. (2019) How do we know the history of extreme poverty? (<https://ourworldindata.org/extreme-history-methods>). Our World In Data.
- Hauser, O. P. and Norton, M. I. (2017) (Mis)perceptions of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21 - 25. (저자들의 여론 조사는 사람들이 가진 자기들의 사회에 관한 인식들이 측정된 평등과 불평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 Hayek, F. A. (1976)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가 진정한 정의와 양립하지 않는 데다가 아주 모호하고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는 용어여서 그것이 전혀 공공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8)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Working Paper WP 18/17.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제4장.

- Jacobs, L., Llanes, E., Moore, K., Thompson, J. and Volz, A. H. (2021) Wealth concentration in the United States using an expanded measure of net worth.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21-6.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 Kelley, J. and Evans, M. D. R. (2017) Societal income inequality and individual subjective well-being: results from 68 societies and over 200,000 individuals, 1981 - 2008. *Social Science Research* 62(1): 1 - 23. (저자들의 아주 광범위한 전 세계 여론 조사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불평등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의 복지에 이로울 것이라고 암시한다.)
- Milanovic, B. L. and Van Der Weide, R. (2014) Inequality is bad for growth of the poor (but not for that of the ric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6963, The World Bank.
- Morgan, M. and Neef, T. (2020) What's new about income inequality in Europe (1980 - 2019)? Issue Brief 20/24, World Inequality Lab.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The gender pay gap widens with age. *The Digest*, no. 7.
- Norberg, J. (2016) *Progress: Ten Reasons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London: Oneworld Publicati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0*.
- Pew Research Center (2013) What men, women value in a job. In *On Pay Gap, Millennial Women Near Parity - For Now* (<https://tinyurl.com/2p8w2cz9>).
- Ramsey Solutions (2021) How many millionaires actually inherited their wealth? (<https://tinyurl.com/2p8wfu7t>).
- Ravallion, M. (2016) Are the world's poorest being left behind? *Journal of Economic Growth* 21, 139 - 164 (<https://doi.org/10.1007/s10887-016-9126-7>).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r, M. and Ortiz-Ospina, E. (2013) Global extreme poverty (<https://ourworldindata.org/extreme-poverty>). Our World In Data.
- Starmans, C., Sheskin, M. and Bloom, P. (2017) Why people prefer unequal societies. *Nature Human Behaviour* 1, Article 0082. (저자들의 여론 조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부의 이상적인 분배에 관해 질문받았을 때 사회가 공정한 한 불평등한 사회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World Bank (2016)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16: Taking on Inequality* (<https://doi.org/10.1596/978-1-4648-0958-3>).
- World Bank (2019) PovcalNet (<http://iresearch.worldbank.org/PovcalNet/data.aspx>).
- World Population Review. Wealth inequality by country 2022 (<https://tinyurl.com/2p9xkbww>).
- Worstell, T. (2019) Oxfam's inequality claims aren't just misleading. They're untrue. *CapX*, 21 January (<https://capx.co/oxfams-inequality-claims-arent-just-misleading-theyre-untrue/>).

추가적인 읽을거리

평등 설화

Pickett, K. and Wilkinson, R. (2010)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London: Penguin. (정신 질환에서 폭력을 거쳐 문맹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 문제가, 사회가 얼마나 부유한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불평등한지의 산물이라고 암시한다.)

Piketty, T. (2017)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자본 수익률이 항상 일반 경제 성장보다 더 커서, 그 결과 부자들이 불가피하게 더 부유해진다고 암시한다.)

Stiglitz, J. (2013) *The Price of Inequality*. London: Penguin. (시장 불안정과 정치 실패를 비판하고 그 결과들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설화의 반박들

Arnott, R., Bernstein, W. and Wu, L. (2015) The myth of dynastic wealth: the rich get poorer. *Cato Journal* 35(3). (부자가 더 부유해진다는 피케티의 주장에서 결함들을 증명하고 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소진하는지를 보여 준다.)

Delsol, J-P., Lecaussin, N. and Martin, E. (eds) (2017) *Anti-Piketty: Capital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Press. (스무 명의 경제학자, 역사가 그리고 조세 전문가가 불평등, 성장, 부 그리고 자본을 검토하고, 토마 피케티의 분석과 해결책들을 비판한다.)

Snowdon, C. (2010) *The Spirit Level Delusion: Fact-Checking the Left's*

New Theory of Everything. London: Democracy Institute. (《수준기》 주장이 경험적 증거가 없고 사회 문제들의 탓을 더 넓은 원인들보다 잘못 불평등에 돌린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비판들

Bourne, R. and Edward, C. (2019) *Exploring Wealth Inequality*.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Press. (부 불평등이 그다지 크지 않게 증가했지만, 주로 더 넓은 대중에 대단히 이로웠던 경제적 진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ourne, R. and Snowdon, C. (2016) *Never mind the gap: why we shouldn't worry about inequality*. IEA Discussion Paper 70.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소득과 부의 분배가 영합 게임이고 쉽게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비판하는데, 그 생각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목표에서 우리의 초점을 제거한다.)

Cavenagh, M. (2002) *Against Equality of Opportunity*. Oxford: Clarendon Press. (기회의 평등이 아주 모호하고 포괄적인 구(句)여서 정책에 대한 지침으로서 쓸모없다고 주장한다.)

Conrad, E. (2016) *The Upside of Inequality: How Good Intentions Undermine the Middle Class*. New York: Portfolio. (불평등에 대한 강박 관념이 과도되고, 유인들을 무디게 하며, 우리가 오늘날의 지식 선도 경제에 필요한 훈련된 재능의 부족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Letwin, W. (ed.) (1983) *Against Equality: Readings on Economic and Social Policy*. London: Palgrave. (저명한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사회 과학자들에 의한 에세이 시리즈로서, 불평등과 재분배의 정통 설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Sowell, T. (2016) *Wealth, Poverty, and Politics*. New York: Basic Books. (두 나라 사이와 세 나라 이상 사이에서 소득 및 부 격차들의 이유들을 탐구한다. 그것은 경제 성장에 관한 서로 다른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기

타 요인의 서로 다른 조합의 효과를 검토한다.)

Sowell, T. (2018) *Discrimination and Disparities*. New York: Basic Books (개정 확대판, 2019). (차별이나 착취 같은 단일 요인 경제 차이 설명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들에 기초한 몇몇 정책이 그렇도록 역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난 이유를 설명한다.)

Watkins, D. and Brook, Y. (2016) *Equal Is Unfair: America's Misguided Fight against Income Inequalit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불평등 철폐와, CEO 급여 상한과 최저 임금 같은, 재분배 정책들을 비판하고, 그 철폐가 경제적 이동성을 손상한다고 주장한다.)

논쟁들

Furchtgott-Roth, D. (ed.) (2020) *United States Income, Wealth, Consumption, and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미국 소득 불평등을 탐구하고, 그것이 쉽게 계량화되지 않아서, 서로 다른 설명과 정책 반응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에세이들.)

Narveson, J. and Sterba, J. P. (2010) *Are Liberty and Equality Compatible?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소극적(negative)' 자유의 정치 원칙이 평등과 양립하는지 두 철학자가 논쟁한다.)

IEA에 관해

본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입니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에 관한 이해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IEA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합니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Sir Antony Fisher)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됩니다.

자체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버킹엄 대학교(University of Buckingham)와 공동으로) 계간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도 출간합니다.

IEA는, 자신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 패널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지는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습니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됩니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됩니다.

1974년 이래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합니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도 아닙니다.

본 연구소의 대학 자문 위원들, 명예 연구 위원들, 이사들 그리고 직원들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그것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서 고(故)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교수께서 하신 관대한 희사(喜捨)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 Lord North Street, Westminster, London SW1P 3LB
Tel: 020 7799 8900
Fax: 020 7799 2137
Email: iea@iea.org.uk
Internet: iea.org.uk

사무총장 & 랠프 해리스 펠로 마크 리틀우드(Mark Littlewood)

학술 및 연구 이사 제임스 포더 박사(Dr James Forder)

관리 이사들

의장: 닐 레코드(Neil Record)
케빈 벨(Kevin Bell)
크리스티안 브외른스코우 교수(Professor Christian Bjørnskov)
로버트 보이드(Robert Boyd)
린다 에드워즈(Linda Edwards)
로빈 에드워즈(Robin Edwards)
마이클 힌치 경(Sir Michael Hintze)
패트릭 민퍼드 교수(Professor Patrick Minford)
브루노 프라이어(Bruno Prior)
마르틴 리케츠 교수(Professor Martin Ricketts)

대학 자문 위원회

의장: 마르틴 리케츠 교수(Professor Martin Ricketts)
그레이엄 배넉(Graham Bannock)
로저 베이트 박사(Dr Roger Bate)
알베르토 베네가스-런치 주니어 교수(Professor Alberto Benegas-Lynch, Jr)
크리스티안 브외른스코우 교수(Professor Christian Bjørnskov)
도널드 J 부드로 교수(Professor Donald J Boudreaux)
존 버턴 교수(Professor John Burton)
포레스트 캐피 교수(Professor Forrest Capie)
스티븐 N S 청 교수(Professor Steven N S Cheung)
팀 콩던 교수(Professor Tim Congdon)
크리스토퍼 코인 교수(Professor Christopher Coyne)
N F R 크래프트 교수(Professor N F R Crafts)
데이비드 드 메자 교수(Professor David de Meza)
케빈 다우드 교수(Professor Kevin Dowd)
데이비드 그린어웨이 교수(Professor David Greenaway)
잉그리드 A 그레그 박사(Dr Ingrid A Gregg)
새뮤얼 그레그 박사(Dr Samuel Gregg)
월터 E 그라인더(Walter E Grinder)
스티브 H 행키 교수(Professor Steve H Hanke)
키스 하틀리 교수(Professor Keith Hartley)
피터 M 잭슨 교수(Professor Peter M Jackson)
제리 조던 박사(Dr Jerry Jordan)
테런스 킬리 교수(Professor Terence Kealey)

린 키슬링 박사(Dr Lynne Kiesling)
 대니얼 B 클라인 교수(Professor Daniel B Klein)
 마크 코야마 박사(Dr Mark Koyama)
 찬드란 쿠카타스 교수(Professor Chandran Kukathas)
 팀 루니그 박사(Dr Tim Leunig)
 앤드루 릴리코 박사(Dr Andrew Lilico)
 스티븐 C 리틀차일드 교수(Professor Stephen C Littlechild)
 시어도어 루스벨트 맬록 교수(Professor Theodore Roosevelt Malloch)
 아일랜드 마셜 박사(Dr Eileen Marshall)
 안토니오 마르티노 교수(Professor Antonio Martino)
 존 메도크로프트 박사(Dr John Meadowcroft)
 안자 메르츠 박사(Dr Anja Merz)
 루시 민퍼드 박사(Dr Lucy Minford)
 줄리언 모리스 교수(Professor Julian Morris)
 앨런 모리슨 교수(Professor Alan Morrison)
 D R 마이덜턴 교수(Professor D R Myddelton)
 마리 뉴하우스 박사(Dr Marie Newhouse)
 폴 오머로드(Paul Ormerod)
 데이비드 파커 교수(Professor David Parker)
 니마 파비니 박사(Dr Neema Parvini)
 빅토리아 커즌 프라이스 교수(Professor Victoria Curzon Price)
 알렉스 로브슨 박사(Dr Alex Robson)
 파스칼 살린 교수(Professor Pascal Salin)
 레이진 샬리 박사(Dr Razeen Sally)
 페드로 슈워츠 교수(Professor Pedro Schwartz)
 J R 새클턴 교수(Professor J R Shackleton)
 제인 S 쇼(Jane S Shaw)
 W 스탠리 시버트 교수(Professor W Stanley Siebert)
 샹커 싱검(Shanker Singham)
 카를로 스타나로 박사(Dr Carlo Stagnaro)
 일레인 스텐버그 박사(Dr Elaine Sternberg)
 제임스 툴리 교수(Professor James Tooley)
 라도미르 타일코트 박사(Dr Radomir Tylecote)
 니콜라 타이넨 교수(Professor Nicola Tynan)
 롤란드 바벨 교수(Professor Roland Vaubel)
 센토 벨자노프스키 박사(Dr Cento Veljanovski)
 로런스 H 화이트 교수(Professor Lawrence H White)
 월터 E 윌리엄스 교수(Professor Walter E Williams)
 제프리 E 우드 교수(Professor Geoffrey E Wood)

명예 연구 위원들

마이클 빈스톡 교수(Professor Michael Beenstock)
 리처드 A. 엡스타인 교수(Professor Richard A Epstein)
 데이비드 레이들러 교수(Professor David Laidler)
 데어드러 맥클로스키 교수(Professor Deirdre McCloskey)
 치야키 니시야마 교수(Professor Chiaki Nishiyama)
 버넌 L. 스미스 교수(Professor Vernon L Smith)

IEA가 최근에 출판한 다른 책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Education, War and Peace: The Surprising Success of Private Schools in War-Torn Countries

James Tooley and David Longfield

ISBN 978-0-255-36746-2; £10.00

Killjoys: A Critique of Paternalism

Christopher Snowdon

ISBN 978-0-255-36749-3; £12.50

Financial Stability without Central Banks

George Selgin, Kevin Dowd and Mathieu Bédard

ISBN 978-0-255-36752-3; £10.00

Against the Grain: Insights from an Economic Contrarian

Paul Ormerod

ISBN 978-0-255-36755-4; £15.00

Ayn Rand: An Introduction

Eamonn Butler

ISBN 978-0-255-36764-6; £12.50

Capitalism: An Introduction

Eamonn Butler

ISBN 978-0-255-36758-5; £12.50

Opting Out: Conscience and Cooper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David S. Oderberg

ISBN 978-0-255-36761-5; £12.50

Getting the Measure of Money: A Critical Assessment of UK Monetary Indicators

Anthony J. Evans

ISBN 978-0-255-36767-7; £12.50

Socialism: The Failed Idea That Never Dies

Kristian Niemietz

ISBN 978-0-255-36770-7; £17.50

Top Dogs and Fat Cats: The Debate on High Pay

Edited by J. R. Shackleton

ISBN 978-0-255-36773-8; £15.00

School Choice around the World ... And the Lessons We Can Learn

Edited by Pauline Dixon and Steve Humble

ISBN 978-0-255-36779-0; £15.00

School of Thought: 101 Great Liberal Thinkers

Eamonn Butler

ISBN 978-0-255-36776-9; £12.50

Raising the Roof: How to Solve the United Kingdom's Housing Crisis

Edited by Jacob Rees-Mogg and Radomir Tylecote

ISBN 978-0-255-36782-0; £12.50

How Many Light Bulbs Does It Take to Change the World?

Matt Ridley and Stephen Davies

ISBN 978-0-255-36785-1; £10.00

The Henry Fords of Healthcare ... Lessons the West Can Learn from the East

Nima Sanandaji

ISBN 978-0-255-36788-2; £10.00

An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Eamonn Butler

ISBN 978-0-255-36794-3; £12.50

An Introduction to Democracy

Eamonn Butler

ISBN 978-0-255-36797-4; £12.50

Having Your Say: Threats to Free Speech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J. R. Shackleton

ISBN 978-0-255-36800-1; £17.50

The Sharing Economy: Its Pitfalls and Promises

Michael C. Munger

ISBN 978-0-255-36791-2; £12.50

An Introduction to Trade and Globalisation

Eamonn Butler

ISBN 978-0-255-36803-2; £12.50

Why Free Speech Matters

Jamie Whyte

ISBN 978-0-255-36806-3; £10.00

The People Paradox: Does the World Have Too Many or Too Few People?

Steven E. Landsburg and Stephen Davies

ISBN 978-0-255-36809-4; £10.00

다른 IEA 출판물들

다른 출판물들과 더 넓은 IEA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는 www.ica.org.uk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출판물이든 주문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보십시오.

개인 고객들

개인 고객들로부터의 주문들은 IEA로 내어야 합니다.

IEA
2 Lord North Street
FREEPOST LON10168
London SW1P 3YZ
Tel: 020 7799 8911, Fax: 020 7799 2137
Email: sales@ica.org.uk

상업 고객들

출판업으로부터의 모든 주문은 IEA의 유통회사로 내어야 합니다.

NBN International (IEA Orders)
Orders Dept.
NBN International
10 Thornbury Road
Plymouth PL6 7PP
Tel: 01752 202301, Fax: 01752 202333
Email: orders@nbninternational.com

IEA 정기 구독

IEA는 또한 자체 출판물들에 대한 정기 구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회 연회비(현재 영국에서는 £42.00)로, 정기 구독자들은 IEA가 출판하는 매 모노그래프를 받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아래로 접촉하십시오:

Subscriptions
IEA
2 Lord North Street
FREEPOST LON10168
London SW1P 3YZ
Tel: 020 7799 8911, Fax: 020 7799 2137
Email: accounts@ica.org.uk

옮긴이 후기

이 역서는 Eamonn Butler, *An Introduction to Economic Inequalit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22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이자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간사인 자유주의자 에이먼 버틀러 박사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간단하고, 통찰력 있으며, 본질적인 개론을 제공한다.

이 책은 짧은 지면에 경제적 평등 및 불평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바쁜 현대 생활에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 권의 긴 책을 읽을 여유가 없는 독자에게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아주 짧은 시간에 증진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순서대로 전개된다: 불평등 통계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평등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다. 평등화 정책들이 결함이 많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평등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빈곤의 제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역자는 이 책의 제14장 민주주의와 평등을 특히 좋아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공공선택론 시각에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먼 버틀러는 공공선택론에 조예가 깊은 학자로서 다른 학자들, 특히 좌파 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제14장의 본문의 한 부분을 여기에 옮겨 보자(p. 119).

이 사실에서, 자유 민주 국가들에서 복지 국가의 발생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지속이 유래한다. 결과들은 빈곤을 제거하거나 평등을 촉진하

는 어떠한 합리적인 전략에보다도 당시의 정치적 압력들과 연합들에 더 달려 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가정하면서, 너무나 흔히 무시하는 어떤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대개 이익 집단들에 의해 움직인다. 불평등을 줄이기는커녕, 정치권력의 현실 모습은—특히 중산층의 정치적 지배는—정치 체제가 불평등을 일으킨다(creates)는 점을 의미한다.

공공선택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소득 재분배에 관해 책을 쓰는 우리나라 교수는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는 불평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개입으로 소득 재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정부가 소득 분배를 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공공선택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더 많은 책을 읽기를 원하면서 이제 시작하려는 독자에게는 이 책은 앞으로의 올바른 독서를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이미 많은 독서를 한 독자에게도 이 책은 생각을 교정하거나 정리하는 요약서가 될 것이다. 역자는 우리나라의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 책을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자에게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장(長) 크리스티안 니미츠(Kristian Niemietz) 박사 그리고 계약 실무를 처리해 주신 EPICENTER 이사 애덤 바사(Adam Bartha)에게 역자는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30일 역자

옮긴이에 관해

황수연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그리고 경성대학교 재직 중에는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풀브라이트 교환학자],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 연구 센터(2004년),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및 스타브로스 센터(2013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공공선택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분야의 책을 다수 번역하였는데, 역서들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지은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 《자유 사회의 기초》,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애덤 스미스 입문》, 《아인 랜드 개론》, 《자본주의 개론》, 《학파: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기업가정신 개론》, 《민주주의 개론》, 《무역과 세계화 개론》, 그리고 버틀러가 한 장(章)을 쓴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가 포함되어 있다.

옮긴이 황수연이 낸 역서(공역 포함)

- 《득표동기론: 공공선택론 입문》(고든 탈력)
《현대 정치 경제론》(브루노 S. 프라이)
《국민 합의의 분석: 입헌 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제임스 M. 뷰캐넌과 고든 탈력)
《동물 사회의 경제학》(고든 탈력)
《새 연방제론: 지방자치의 공공선택론》(고든 탈력)
《게임 이론: 개념과 응용》(프랭크 저게리)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 바람직한 정부 범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고든 탈력)
《지대 추구》(고든 탈력)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 민주주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브라이언 캐플런)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고든 탈력)
- 《득표 동기론 II: 공공 선택론의 이해》(고든 탈력)
《자유주의로의 초대》(데이비드 보어즈)
《관료제》(루트비히 폰 미제스)
《전제 정치》(고든 탈력)
《간결한 경제학 길잡이》(짐 콕스)
《복지, 정의 그리고 자유》(스콧 고든)
《도시 정부의 이해: 대도시 개혁의 재고》(로버트 L. 비시와 빈센트 오스트롬)
《경제 모형과 방법론》(랜들 G. 홀콤)
《공공선택론 입문》(에이먼 버틀러)
《대중을 위한 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 입문》(진 캘러헌)
-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고든 탈력)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에이먼 버틀러)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이 정신 그리고 발견》(이즈리얼 M. 커즈너)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랜들 G. 홀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에이먼 버틀러)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공공선택 접근법》(로버트 L. 비시)

《자유 사회의 기초》(에이먼 버틀러)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리처드 웰링스 편)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랜들 G. 홀콤)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에이먼 버틀러)

《축약된 국부론: 그리고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에이먼 버틀러)

《자유 101》(매드센 피리)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랜들 G. 홀콤)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랜들 G. 홀콤)

《상식의 경제학: 모든 사람이 부와 번영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제임스 고트니, 리처드 스트룹, 드와이트 리, 토니 페라리니, 및 조지프 캘훈)

《애덤 스미스 입문》(에이먼 버틀러)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랜들 G. 홀콤)

《아인 랜드 개론》(에이먼 버틀러)

《시장의 제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존 L. 켈리)

《자본주의 개론》(에이먼 버틀러)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랜들 G. 홀콤)

《학파: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크리스토퍼 J. 코인과 피터 J. 빗키)

《기업가 정신 개론》(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애덤 스미스》(제임스 오티슨)

《민주주의 개론》(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제임스 뷰캐넌》(도널드 J. 부드로와 랜들 G. 홀콤)

《본질적인 밀턴 프리드먼》(스티븐 E. 랜즈버그)

《무역과 세계화 개론》(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자유의 여성들》(도널드 J. 부드로와 이언 J. 스코블 편)